

雲門

불기 2558년

봄호

통권 제128호

雲門僧伽大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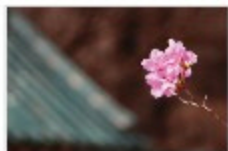
구름문을 펼치다 - 「운문」 통권 127(겨울)호를 읽고 -

- ☞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한 곳에만 두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꾸 여러 갈래로 나뉘는 이 마음을 관해보며, 새해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수행자가 되기를... / 사교과 제정
- ☞ 올해도 운문지 겨울호를 펴면서 즐거웠던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모두 日日是出家!! 날마다 날마다 발심하기를... / 사교과 원일
- ☞ 우리 한 철 살림의 결산보고서 운문지! 화려한 겨울나무표지가 장엄함을 더 하네요. / 사교과 현공
- ☞ 화엄반 스님들의 빈자리만큼 추워진 날씨이지만 새로 올 치문반 스님들을 기다리는 마음엔 벌써 봄이 온 거 같습니다. 훌쩍 훌쩍 지나는 한 해 한 해가 아쉽지만 운문사에서 지내는 한 해 한 해는 두둑하기만 합니다. / 사집과 혜과
- ☞ 정성이 묻어나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절로 미소짓게 됩니다. 사집반이 되어 받아보는 운문지는 또 다른 감동을 주까요? 다가올 봄호, 잘 부탁드립니다. / 사집과 무진
- ☞ 역시 사진이 기억에 제일 많이 남네요... 치문반 스님들 치문 보내느라 근념하셨습니다. / 사집과 보성

雲門

목차

- | | |
|-------------------|---------------------------------|
| 02 호거산 운문사 | 구름문을 펼치다 - 『운문』 통권 127(겨울)호를 읽고 |
| 04 죽림현 |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명성 |
| 06 교수논단 | 靑梅印梧의 拈頌詩 考究 ② 원범 |
| 09 풍경소리 | 그대가 있어 이 세상은 향기롭다 명현 |
| 10 자유기고 1 | 두 번째 새로운 봄 도아 |
| 12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 도토리 키 재기 지성 |
| 14 기획연재 | 티베트스님의 불교 핵심교리 석소남 |
| 19 깨달음으로 가는 길 |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편집부 |
| 20 특별기고 | 사람을 마음에 담는 것 김동일 |
| 24 담소 | 나의 인연, 나의 부처님 김명숙 |
| 26 운문, 운문인 | 눈부신 봄날 편집부 |
| 28 차례법문 | 마음 소 길들이기 태우 |
| 30 학인논단 | 『雲門』에 나타난 불교 수용 양상 ① 동우 |
| 35 자유기고 2 | 운문사 새벽예불 무상행 |
| 36 수행의 두레박 하나 | 산사의 음식 성돈 |
| 38 수행의 두레박 둘 | 강원에서만 잘하면 되나? 원점 |
| 40 방부소감 | 내가 운문사에 오기까지 도현 |
| 42 끝없는 여정 | 역경보살 월운 큰스님 원담 |
| 45 想 | 감로수甘露水 진용 |
| 46 이 한 권의 책 | 길을 가게 만드는 책 법안 |
| 48 운문논평 | 우리는 흔들리며 피는 꽃들 편집부 |
| 50 운문소식 | |
| 51 등불 | 통권 128호, 봄호, “푸른 달” |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명성 / 운문사승가대학 회주



대개 새싹을 생각하면 곱고 연약한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과연 새싹에 그러한 모습만 있을까요? 우리 수목원 곁 농로는 시멘트 포장에 덮여 있어서 식물이 자라기에는 매우 힘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린 제비꽃 싹이 이 무거운 흙더미를 이고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리고 연약한 새싹이라도 무거운 흙을 뚫고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생명을 피워 올릴 때의 그 힘이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당장은 힘이 미약하더라도 꾸준히 노력해가면 저 새싹처럼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어린 싹이지만 이토록 힘차게 올라오는 것을 보니 나에게는 어떤 생명이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단순히 목숨이 붙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서 생생 약동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저 강인한 새싹처럼 현실의 온갖 어려움을 뚫고 올라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새싹을 보면서 느낀 생명의 힘을 내 속에서 찾아서 밖으로 드러내어 그 힘을 잘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지런히 정진하라. 부지런히 정진하면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방일함을 원수와 도둑을 멀리하듯이 하라. 나는 방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정각을 이루었다. 낙숫물이 떨어져 돌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이 끊임없이 정진하라. 수행자들이여 이것이 나의 최후 설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낙숫물이 부드럽고 약하지만 방울방울 떨어져 단단한 돌을 뚫는 것과 같이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쉬지 않고 계속하면 어느 때인가는 반드시 결실을 얻게 됩니다. 요즈음 산의 색깔이 나날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일 매일 나뭇가지에 새싹이 돋아나서 조금씩 푸르러지는 산처럼 새 생명의 힘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방일하면 안 되는 이유도 정성스럽게 계속하는 것이 변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작은 구멍이라도 틈이 있는 물통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느 땀가는 빈 물통이 되고 맙니다.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실수나 작은 허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뒷날 크게 후회할 날이 옵니다.

우리도 새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때는 봄에 새싹이 단단한 대지를 뚫고 힘차게 올라오듯이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詩經에 “靡不有初나 鮮克有終(처음이 없지는 않으나 잘 마치기가 어렵다.)”이라고 하였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 되듯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쉬지 않고 계속하는 정성심만 있다면 반드시 큰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신입생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확인스님들도 처음 출가한 뜻을 다시 되새겨 보고, 봄기운을 받아 자라나는 만물들을 본받아서 부지런히 정진하고 또 정진하여 처음 출가한 뜻을 기필코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

青梅印悟의 拈頌詩 考究 ②

원법 / 운문승가대학 강사

목 차

- I. 序言
- II. 青梅의 生涯
- III. 振綱宣義의 拈頌詩
 - 1. 拈頌詩의 淵源
 - 2. 無分別智의 空性和 天然之心의 佛性を 拈頌
- IV. 結語 - 青梅拈頌詩의 特徵과 意義

앞의 시에서는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하여 ‘卽心卽佛’이라 한 마조의 처방에 대한 청매의 見處를 보여주었고 다음 시는 마조가 울음이 그친 아이에게는 ‘非心非佛’이라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청매의 頌이다.

桃李芳菲一色春 향기나는 복숭아꽃 자

두꽃 한 빛인 봄날

南家解笑北家嘔 남쪽 집 웃고 북쪽 집 찌푸리네,
楊妃玉碎金戈下 양귀비의 옥 칼창 아래에서
부서지니

傍有回頭啓齒人 곁에서 머리 돌리고 웃는 사람
있네.

「非心非佛」, 『青梅集』(『韓佛全』 8, 131면 중)

卽心卽佛에서는 마음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 시에서는 마음도 아니고 佛도 아니라 한다. 모두 부정이다. 청매는 여기에 대하여 자신의 見處를 보여준다.

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봄날, 南家에서는 웃고 北家에서는 찌푸린다고 하였다. 무슨 이유인지를 설명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나 ‘一色’에서 이미 그 해답을 제시하였다. 한 빛인데 웃고 찌푸리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즉 자신의 이익과 관련되어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 뿐 경계가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다음 두 구는 중국의 또 다른 미인인 양귀비와 관련된 고사를 끌어왔다. 양귀비는 당 현종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 부귀와 권세를 맘껏 누렸던 인물이지만 안록산의 난으로 결국 길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 제 3구는 이를 묘사하였다. 현종은 사랑하던 여인의 죽음으로 슬픔이 지나친데 그 옆에서는 웃는 사람이 있다. 그 웃는 사람은 양귀비의 죽음으로 다시 조정과 백성이 편안해지기를 염원한 관리일 수도 있겠고, 오로지 양귀비만을 바라보고 있던 왕에게서 외면받았던 수많은 궁녀들일 수도 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이익에 의하여 울고 웃는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그 마음에는 ‘나’가 자리한다. 나가 자리하기 때문에 너라는 이분법이 생기게 된다. 청매는 이 나와 너, 중생과 佛이라는 분별이 없어진 平常의 자리가 곧 어린아이가 울음을 그친 자리라고 표현해 놓은 것이다. 이와 같이 형용하기 어려운 眞理를 實物에 비유하여 친근한 생동감을 불어넣어 주고 그 경지를 곧바로 알 수 있도록 뚜렷하게 부각

시킨 것은 청매의 뛰어난 詩才이기도 하다.

千古靈峰一星兒 천고 영봉의 한 별
誰知流落在鮑肆 누가 알았으리요. 생선가게
에 떨어져 있음을
朝行市裏爭多少 아침에는 시장에 다니면서
많고 적음을 다투다
又着紅衣步玉堦 또는 붉은 옷을 입고 옥의 계
단을 거니네.
『盤山游市』, 『青梅集』(『韓
佛全』 8, 132면 중)

盤山寶積이 시장을 지나는데 어떤 사람이 고기
를 사러가서 고기 파는 사람에게 말하였다. “좋은
고기를 한 조각 잘라주소.” 고기를 파는 사람이
고기 썰는 칼을 놓고 “어떤 것이 좋지 못한 것입니
까?” 하였다. 盤山寶積은 이 광경을 보고 깨달았다.

청매는 1·2구에서 푸줏간에서 고기 파는 주
인을 오랜 옛적부터 있어 온 신령스러운 봉우리 위
의 한 별이라고 극찬한다. 모든 생각과 분별을 여윈
모양 없는 참지혜인 無分別智의 그 빛나는 별이 생
선가게에 떨어져 있으면서 범부로 살고 있다고 보
았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였
지만 반산보적이 알아챘음을 2구의 ‘誰知’라고 보
여주었다. 3·4구에서는 ‘星兒’의 일상을 읊었다.
즉 시장에서 목청을 돋우고 시비를 하는 범부의 모
습을 보이기도 하다가 어느새가 또 화려한 옥으로
땅을 장식한 궁전의 뜰 위에 紅衣를 입고 거니는 신
선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시장 속에서 다
툼을 일삼다가 또 고고한 신선의 자태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은 ‘市裏’와 ‘玉堦’라는 분별심이 없기 때
문이다. 시장이나 옥지를 거니는 사람은 추한 곳이
라거나 귀한 곳이라는 생각 자체가 끊어져 있다.

반산은 푸줏간에서 주인의 말을 듣기 전까지
는 다름이 빈빈한 시끄러운 시장이라는 분별과 더

군다나 살생하는 장소라는 푸줏간에 대한 분별지
가 작동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반산이 본 것은
이러한 자신의 분별지였다. 이 대화를 통해 반산의
분별심이 모두 무너져 버린 것이다.

花林洞下大小空 화림동 아래 대공 소공
侍聽朝昏意不忒 하루 종일 시중들어 뜻에 걱
정이 없네.
眞淨界中無隱顯 진여의 청정한 법계에는 숨
거나 나타남이 없는데
秋江起浪在西風 가을 강에 서풍이 불어 물결이
이네.
『花林侍者』, 『青梅集』(『韓佛
全』 8, 133면 중)

華林 선사의 두 마리 호랑이와 관계된 이야기
이다. 어느 날 배휴가 화림에게 시자가 있느냐고 묻
자 두 마리 호랑이가 있다고 하였다. 배휴가 어디에
있느냐고 함에 大空·小空의 두 마리 호랑이를 불
렀다. 이에 두 마리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나오자
배휴가 놀람에 그만 물러가라하자 호랑이가 그대로
따랐다.

앞의 두 구는 위 이야기에 대한 것이다. 다음의
두 구는 화림 선사와 두 마리 호랑이와의 관계를 어
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청매의 풀이이다.

華嚴의 世界觀은 事事無礙의 法界觀이다. 事
事無礙란 각각 존재하는 것이 서로 아무런 걸림도
없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法界觀을 지엄·법장 등
화엄의 종주들은 十玄緣起로 설명하고 있다. 十玄
緣起는 실재하고 있는 각각의 유·무정 전체가 원
융무애의 관계에 있음을 열 가지 관점에서 설한 것
이다. 隱顯은 華嚴의 현현하고 있는 사사물물 전체
가 원융무애의 관계에 있음을 설명하는 十玄門 가
운데 ‘隱密顯了俱成門’이다.¹⁴⁾

隱顯은 하나에 모두 구축되어 있다는 뜻이다.

14) 카마타시게오 저, 한형조 옮김, 『화엄의 사상』, 고려원, 1991, 119~121면

이는 隱이라 할 수도 顯이라 지목할 것도 없다는 뜻이 된다. 어디에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隱顯이 달라질 뿐으로 隱顯은 다만 우리의 인식체계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다.

배후는 화림 선사를 곁에서 모시는 시봉이 보이지 않기에 없다고 여겼다.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고 여긴 것이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청정한 진여법계의 모습이다. 제 4구는 청정한 진여법계에는 隱이랄 것도 顯이랄 것도 없는 것에 대한 비유이다. 강 위의 물결이 있다. 물결을 볼 때 바람은 隱이 되고 물결은 顯이 되며 물결을 일으킨 바람을 주목할 때 바람은 顯이 되고 물결은 隱이 된다. 이 물결과 바람을 둘로 떼어 낸다면 물결도 없고 바람도 없는 것이 되고 만다. 진여법계의 자리도 마찬가지다. 중생과 佛, 번뇌와菩提, 생사와涅槃 등과 같이 대립적으로 생각하던 것도 실체는 모두 동등한 것이며, 번뇌가 곧 보리요, 생사가 곧 열반이 되는 것이다.

IV. 結語 - 青梅拈頌詩의 特徵과 意義

이상 청매가 공안의 本則에 대하여 拈頌한 시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선사들이 機鋒을 드러내어 선의 경지를 보여주는 과정은 언어를 통하여 해설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을 상징화하거나 아니면 시구를 빌려 나타내었는데 도를 깨달은 경지에 따라 소견 또한 각기 달랐다. 그러므로 공안에 대해서도 똑같은 해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똑같은 계송도 없게 된다.”¹⁵⁾ 위의 시에서 살폈듯 청매는 모두 分別智를 떠난 자리인 無分別智를 설하고 無分別智가 바로 同一한 自性이며 空임을 때로는 直觀으로 때로는 譬喩로, 때로는 보편적이고 논리적인 형식으

로 보여 주었다.

한편, 두송백은 “禪人의 계송은 시에 가깝고 敎하는 이들의 계송은 압운의 文에 가깝다. 다만 敎하는 이들은 推理를 중히 여기고 直說이 많으며 禪人들은 直觀을 중히 여기고 비유를 많이 사용하였다.”¹⁶⁾고 禪과 敎하는 이들의 작시경향을 분석하였다. 청매는 禪敎를 다 겸비한 禪僧으로서 그의 시에는 推理와 直觀 모두의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우선 그의 시의 특징으로는 ‘魚’ ‘鴨’ ‘西子’ ‘南北家’ ‘楊妃’ 등 일상어를 사용하여 사물의 자연스러운 현상과 사람의 평범하고 보편적인 감정흐름이 ‘卽心卽佛’ 이요 ‘非心非佛’ 인 세계를 推理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示諸僧」에서 보여주듯 사랑할 수 있게 하였으며, 서술적으로 시를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복두성이 남쪽에 떨어진다.’와 같은 모순된 말로써 논리와 사유를 초월시킨 直觀의 길을 열어 놓고 禪道理를 표현하는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해 不立文字, 言語道斷의 禪詩의 효용을 잘 이끌어 낸 특징이 있다.

한편, 청매는 조사들이 남긴 公案의 本則을 요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자신의 詩才와 見處를 바탕으로 한 전형적인 계송 작품을 남김으로써 眞覺慧識의 뒤를 이어 조선시대에 拈頌詩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이는 불교 선시문학사상 禪偈의 확고한 전통을 마련해준 진각혜심과 함께 전통을 단절시키지 않고 유지 발전시켰다는 데 그 詩文學史의 意義가 있다고 할 수 있다. ㉟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합니다.

15) 두송백 지음, 박완식·송대각 옮김, 『선과 시』, 민족사, 2000, 118면

16) 杜松柏, 『禪學與唐宋詩學』, 黎明文化事業公司, 1965, 197면 “在禪人曰偈曰頌 在詩家曰詩歌 其揆一也 禪人之偈頌近詩 敎下之偈頌近於押韻之文 但敎下重推理 多直說 禪人重直觀 多用比興”, 권동순, 앞의 논문, 188면 재인용

그대가 있어 이 세상은 향기롭다

명현 / 한문불전대학원 1학년



두 번째 새로운 봄

도아 / 사집과

요즘 설현당 옆 매화나무가 마치 영화관에서 먹던 팝콘이 푹 튀어나오듯 매화꽃도 하나 둘 꽃봉오리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신입생으로 방부 들었을 때는 날씨가 추운 탓에 얼어서 누렇게 뜬 목련꽃을 보며 정신없이 첫 번째 봄을 맞이하며 보냈지만 사집반이 되니 반가운 신입생스님들이 무려 33명이나 우리에게 따뜻한 봄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사집반 올라가면 더 신심나고 공부가 재밌을 거예요.' 치문을 마무리하던 지난겨울 남는 반이었던 저희에게 건넨 어느 스님의 말씀입니다. 힘내라는 뜻이겠지 하고 웃어넘겼는데 놀랍게도 개강날짜가 되자 반 스님들 눈에선 빛이 났고 맘속에선 무엇인가 희망 가득 찬 의지가 불타오르듯 면학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지난겨울 부반장 소임을 살며 겨울철 대중 김장올력도 열심히 하며 보냈습니다. 하지만 김장이 끝나고 얼마 후 바로 대중 병고자로 2달가량 지내게 되었던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없게 되자 평소 나의 생활태도와 생각들에 대해 반성과 깊은 사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마음의 병도 열게 되어 다친 부위보다 마음이 더 힘들었습니다. 강원생활에 대한 걱정과 다친 부위가 제대로 낫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사집반에 올라가서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으로 겨울을 보내고 드디어 사집반에 올라오게 된 저는 솔직히 신심도 안 났었고 시간여건상 하지 않은 재활치료와 몸이 불편한 것에 대한 짜증으로 사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뵙는 강사스님의 한문불전 수업 2시간 만에 신심이 나고 열심히 하고 싶은 의욕이 생겨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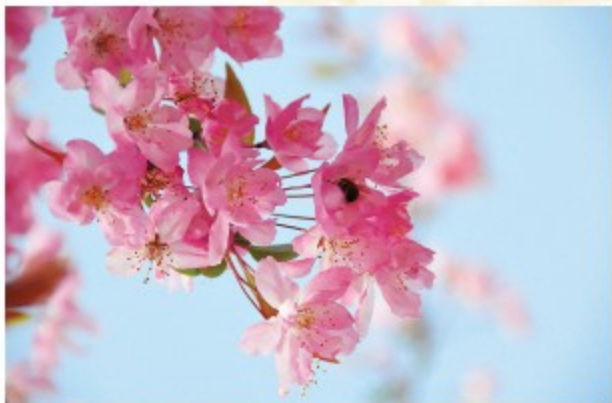
무엇을 배우기에 그럴까요? 바로 서산 대사의 『선가귀감禪家龜鑑』입니다. 선가禪家란 선의 모든 종파를 총칭하여 부르는 말이고 귀감龜鑑은 거울이 되는 본보기라는 뜻입니다. 조선 중기 때 고승인 휴정 스님의 저술이며 50여 권의 경론과 조사어록을 보다가 요긴한 것을 추려 모아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서산 스님은 선교관에 대해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禪是佛心이요 敎是佛語니라.

선은 곧 부처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 말씀이니라.”

선교가 둘이 아님을 밝히면서도 선을 우위에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가에서 수행자들이 지녀야 할 일상적인 행동규범을 간곡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문장 문장마다 배우는 우리의 가슴을 쿵 울리고 동시에 그동안 방심하고 있었던 저희들을 반성하게 하고 일깨워 줍니다.



“금생에 꼭 부처님의 지혜를 이룰 수 있을까? 앓고 눕고 편할 때에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는가? 이 육신으로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를 비롯하여 반 스님들과 공감하고 싶은 구절을 책을 읽다가 아! 이거다 하고 발견한 구절이 있습니다.

“有人來害어든 當自攝心하야 勿生嗔恨하라 一念瞋心起하면 百萬障門開니라.

누가 와서 해롭게 하더라도 마음을 거두어 성내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한 생각 성내는 데에 백만 가지 장애의 문이 열린다.”

이 구절을 각자 마음에 새겨 반 스님들 서로 배려하고 보듬어 주는 화목한 사집반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치문시절이 힘들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금방 지나간 1년이란 시간이 지나갔듯이 많이 부족하고 차박내인 저를 거두며 챙겨주었던 반 스님들과 항상 잘되라고 도와주셨던 상반스님들께 이제라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선가귀감을 배우면서 첫 발심했을 때의 초심과 신심으로 붓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 감회가 새롭고 강사스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같이 새기며 운문사 학인스님들도 열심히 공부하시며 정진여일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_(_)_

“看經을 若不向自己上做工夫하면 雖看盡萬藏이라도 猶無益也니라.

경을 보되 자기 마음 속으로 돌이켜봄이 없다면

비록 팔만대장경을 다 보았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卷

도토리 키 재기

지성 / 운문사승가대학 강사

어느 날 들고양이가 도토리들의 소송에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토리들은 각각 자신이 잘났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도토리는 머리가 뽕족한 것이 훌륭하다고 하며, 자기 머리가 가장 멋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도토리는 큰 것이 훌륭하다, 둥근 머리가 훌륭하다, 키 큰 것이 훌륭하다 등등...

그래서 재판은 2, 3일이 지연되었습니다.

들고양이 재판장은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친구인 다른 재판장에게 어드바이스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이 가운데 가장 멍청하고 어리석으며, 형편없는 도토리가 가장 훌륭하다고요. 내가 어떤 법문에서 들었거든요."

도반의 조언에 감탄한 들고양이는 도토리들에게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이제 됐다. 조용히들 해보시오. 이 가운데 가장 형편없고, 멍청하고 어리석으며 머리가 찡구인 놈이 가장 훌륭하다."

위의 스토리는 일본의 동화작가인 미야자와겐지(宮澤賢治)의 동화에 나오는 한 토막입니다.

이름테면 도토리 키 재기에 대한 우화寓話라고나 할까요?

불교에서는 도토리 키 재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하면, **만慢**을 혼계하는 것입니다.

'만慢'이란 산스크리트어로 'māna'인데, 자신을 타인과 비교했을 때, 자기가 훨씬 잘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은 만만이 있습니다.

1. 만慢 ... 이것은 자기보다 실력이 낮은 상대와 자신을 비교해서 저놈보다 내가 훨씬 잘났어! 하고 생각하는 것. 또는 자신과 동등한 상대와 비교해서 저놈과 나는 같은 실력이야! 라고 보는 것을 말합니다.

2. **비만卑慢** ... 자기보다 잘난 상대와 자신을 비교해서 저놈보다 나는 못났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의 1과 2는 자신의 실력을 정확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이 훨씬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3. **과만過慢** ... 이것은 자기의 실력을 한층 높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과 동등한 자를 비교해서 저놈보다 내가 훨씬 실력이 높아!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자신보다 실력이 위인 자와 비교해서 나는 저놈과 같은 정도야!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4. **만과만慢過慢** ... 이것이 가장 심한 경우인데요. 자기보다 실력이 높은 상대와 자신을 비교해서, 나는 저 녀석보다 위라고 보는 것. 즉, 자신을 두 단계나 높게 평가하는 것이지요.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 결국에 위의 네 가지로 귀결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라도 우리들의 마음은 여전히 잘났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도토리 키 재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도토리 키 재기에 사용되는 잣대는 불확실하고 모호합니다. 어떤 자로 측정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머리가 뽕죽한 것, 키가 큰 것, 둥근 것, 마른 것 등등... 각각 자신의 잣대를 주장합니다. 인간의 잣대로는 측량할 수 없는 것이 만慢의 혼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잣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잣대는 “이 가운데 가장 형편없고, 엉터리이며, 멍청하고, 머리가 찌그러진 쟁구가 가장 훌륭하다.”는 잣대인 것입니다. 참으로 기묘하고도 이상한 잣대입니다.

부처님의 잣대는 엉터리 잣대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잣대는 인간의 잣대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의 잣대는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측량하는 잣대이지만, 부처님의 잣대는 본질적으로 ‘측량할 수 없는 잣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잣대로 측량하면 내가 잘나지며, 타인을 경멸하게 됩니다.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헤아리지 말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헤아리지 않으면 누가 잘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훌륭한지 모르면 우리는 모두 누구나 소중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바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모두 부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평등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자기 멋대로 인간의 잣대를 들이대어 부처의 자식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토리 키 재기를 하는 것입니다. ‘탐진치’ 삼독三毒 가운데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라~” 부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인간의 잣대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슬프게도 마음먹은 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인간의 잣대 대신에 부처님의 잣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부처님의 잣대로 측량하면 모두가 부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습니다. ॥

티베트스님의 불교 핵심교리

석소남 / 부산 광성사 주지



티베트스님의 불교에 대한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티베트에서 온 티베트계 한국인 석소남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운문지 불호에 티베트 불교의 핵심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티베트 강원에서는 보통 20년간 불교 교육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며 배우고 있습니다. 주로 5대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5대경이란 인명학, 반야학, 중론, 율, 구사론을 말합니다. 인명학 4년, 반야학 7년, 중론 3년, 율 4년, 구사론 2년 해서 불교 교육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제대로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티베트 스승님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제대로 배우려면 첫째, 복을 잘 갖추어야 하고, 둘째, 공부에 대한 열정, 셋째, 공부와 제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호기심으로 불교 공부를 몇 주, 몇 달, 몇 년 열심히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공부를 제대로 함에 가장 큰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티베트 스승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공부 따로 수행 따로는 없다고 하십니다. 수행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하고 있는 공부 모두 다 수행이 됩니다.

예를 들면, 수행하는 마음으로 청소를 하면 청소하는 행 자체가 수행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수행과 수행 아닌 경계는 마음 동기에 달려 있습니다. 선한 마음, 이타의 마음으로 하는 말과 행동 모두 수행이라고 할 수 있고, 악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는 말과 행동 모두 수행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종교입니다. 염송과 의식은 이미 다른 종교에서도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염송하는 것과 몸으로 다양한 의식 행위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불교와 비불교의 차이를 알 수 없습니다.

불교와 비불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아無我에 대한 가르침의 있고 없음에 있습니다. 타 종교에서는 제법諸法이 무아無我라고 하는 가르침이 없습니다. 오직 불교에서만 무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에 따른 차이도 있습니다. 불교는 윤회세계에서 벗어난 해탈과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성불이 목적이고, 타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타 종교에서도 ‘해탈’이라는 말은 있지만 번뇌를 끊고 윤회세계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정토나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바탕이 되는 근본론, 수행론, 결과론 세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본론은 사성제, 이성제, 오온, 18계, 12처 등을 말하는 것이고, 수행론은 그 근본과 일치하는 방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도와 십지, 육바라밀 등 지혜와 방편의 다양한 도를 닦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결과론은 부처님의 신·구·의 공덕 또는 법신·보신·색신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교의 핵심 교리와 티베트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람림(보리도차제)』에 대해 요약해서 설명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티베트 불교 교리의 핵심체계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해탈의 길을 가르치지만, 해탈은 너희들 각자에게 달린 것임을 알아야 한다.”

“너의 스승은 너 자신이다”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이해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 간단하게 말하면 세 시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1)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깨달음을 성취하려고 한 시기 (처음으로 보리심을 일으키기)
- (2) 지혜(지덕)와 복덕을 쌓는 수행을 한 시기 (중간으로 무량겁 동안 두 가지 덕을 쌓은 시기)
- (3) 깨달음을 얻고 가르침을 베푸는 시기 (마지막으로 성불하신 이후 다양한 법을 설하신 시기)

부처님의 생애를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어떠한 존재도 본래부터 깨달음을 갖고 태어날 수는 없으며, 부처님도 무량겁 동안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으셨듯이 우리 수행자들도 꾸준히 수행 정진한다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승경전인 『해심밀경』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 시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심밀경』은 유식학파의 소의경전입니다. 유식학파의 견해에 따르면 제3법륜을 최상의 법륜이라고 인정합니다. 이유는 일체 존재의 성품을 3가지(변계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로 나누어 자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유식삼성唯識三性이라 합니다.

- 초전법륜初轉法輪 시기: 사성제에 대한 가르침
- 제 2법륜(照法輪) 시기: 공성空性에 대한 가르침
- 제 3법륜(持法輪) 시기: 공성空性에 대해 자세하게 가르침

불교 학파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 생애에 대해서 테라바다(상좌부)와 대승불교에서의 견해가 다릅니다.

테라바다에서는 부처님의 성불 이전의 생애를 중생으로 생각하지만, 대승불교에서는 도솔천에서 내려올 때부터 부처님으로 인정합니다. 이미 부처를 이루시고, 화신으로 내려오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테라바다에서는 보신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두 가지 다른 견해가 혼란스럽게 사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해심밀경』에 따라 제3법륜을 최상의 법륜으로 인정하고, 8식(아뢰아식)을 유식파의 견해에 따르면서도 공성에 대해서는 중관파의 견해를 인정하는 등 혼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4대 학파에 대한 분석과 정확한 견해가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람림’을
바탕으로 한
수행체계에
대한 이해



(1) 스승을 바르게 의지하기

- 틀리지 않고 빠짐없이 가르칠 수 있는 10가지 자격 갖춘 스승을 찾는 것의 중요함
- 이러한 스승을 만나기 위해 자기 스스로 갖추어야 할 5가지 조건
- 만나고 나서 생각과 행으로 제대로 의지하는 방법

(2) 유가구족有暇具足을 사유하여 이 몸 귀중하게 생각하기

- 8유가有暇 : 8가지 수행할 수 있는 여유



- 10구족具足 : 10가지 갖춰진 수행 조건
- 8유가 10구족을 사유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큰 뜻 이루기 위해 정진하기

(3) 죽음의 무상無常에 대하여 생각하여 수행정진하기

- 수행을 미루지 않고 지금 바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죽음에 대한 3가지 뿌리와 9가지 이유를 관상하기
- 거친 무상, 미세한 무상을 통해 무상에 대해 관상하기
- 죽음을 받아들이는 세 수행자

① 최상의 수행자

죽음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자식이 부모님 계시는 고향으로 가는 것처럼 기쁘게 받아들인다.

② 중간 수행자

이러한 기쁜 마음이 없더라도, 두려움 없이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③ 낮은 수행자

살아 있을 때 할 수 있는 만큼 했다고 생각하면서 후회하는 마음 없이 받아들인다.

(4) 인과因果를 믿고 삼귀의 하기

- 모든 이익과 행복의 뿌리, 인과를 믿는 마음 일으키기
- 지은 업의 과보果報는 반드시 받음
- 짓지 않은 업의 과보는 만나지 않음
- 지은 업의 과보는 피할 수 없음
- 작은 업의 과보로 큰 결과를 받음
- 6가지 원인(주원인, 부원인)과 5가지 과보(주과보, 부과보)

(5) 사성제四聖諦에 의지해 해탈하고자 하는 마음 일으키기

- 어디에서 해탈하는 것인가 (윤회의 인과)
- 어떻게 해탈하는 것인가 (해탈의 인과)
- 사성제의 단계를 '집고도멸集苦道滅' 이 아니라 왜 '고집멸도苦集滅道' 라 하셨나



(6) 자비심을 바탕으로 보리심 일으키기

- 출리심出離心 없이 자비심이 생겨날 수 없는 이유
- 보리심菩提心이란 무엇인가
나 자신이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확고하게 일으킨 후, 부모였던 일체 중생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겠다는 자비심으로, 일체 중생을 돕기 위해 부처 이루겠다는 마음
- 인과를 통해 보리심 일으키는 7가지 단계 (규데 팬악된)
- 나와 남 바꾸어서 보리심 일으키는 방법 (탁선 남제)

(7) 보리심 바탕으로 육바라밀 행하기

- 순수한 보리심을 일으키더라도 육바라밀을 행하지 않으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하기에 육바라밀을 행해야 함.
- 육바라밀 각각의 3가지 종류
해탈하고자 하는 마음(출리심, 네중), 보리심(장출생), 공성을 깨우치는 견해(양따베 따와)가 티베트 불교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도도의 목숨과 같은 중요한 수행 요체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티베트의 큰 강원에서 5대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석소남 스님

1986년 티베트에서 인도로 망명하여 인도 남부 드레퐁 라파사원으로 출가하여 달라이라마 존자님으로부터 사미계를 받으셨고, 드레퐁 사원 스승들에게서 5대경을 배우셨고 1992년 다람살라에서 달라이라마 존자님으로부터 비구계를 받으셨다. 2004년 8월부터 한국 광성사(한국티베트센터) 초청으로 한국에 오신 후 광성사와 참여불교 재가연대에서 랍뎀, 티베트어 등을 강의하셨다. 그리고 현재 광성사의 주지스님으로 계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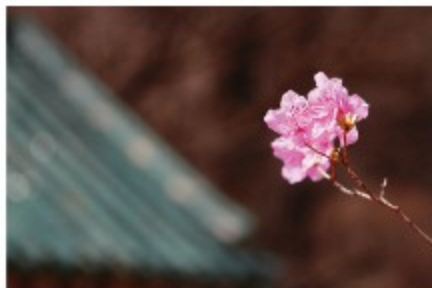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의 독은 치성하고 분노의 불은 항상 타오른다.
인연을 만나면 장애를 일으키고 경계에 부딪치면 성을 낸다.
분노에 찬 말은 입을 찢르고 마음을 태움으로써 상대방을 다치게 하니,
그 아픔은 칼로 베이는 것보다 더하다. 이것은 보살의 착한 마음을 어기고,
부처님 사랑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것이다.

- 제경요집 / 제 14권 -

사람을 마음에 담는 것

김동일 / 시인, 동국대학교 일산불교한방병원장



버들개지라고 하지요. 봄에 버드나무에서 하얀 솜 같은 것이 날리는 것 말입니다. 왕버들, 수양버들 같은 버드나무 종류나 포플러 종류는 모두 봄이 되면 이처럼 솜털을 단 가는 씨앗이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게 됩니다. 어쩌면 봄 별 속에 서설이 날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이 흰 솜털은 바람을 타고 먼 곳까지 옮겨가는 역할을 하는데, 옛사람들은 이것을 '유서柳絮' 혹은 '유화柳花'라 하였습니다. 봄이 넉넉해지는 봄날에 버들개지가 나는 모습은 그리움이나 낭만 같은 느낌을 주어 한시의 소재로 자주 등장합니다.

고려 말의 문인이었던 최사립의 칠언절구 중에 「기다림(待人)」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天壽門前柳絮飛 / 一壺來帶故人歸 / 眼穿落日長程畔 / 多少行人近却非

이 시는 제가 우연히 알게 된 것인데, 여기에도 바로 '유서'가 나와 시인이 시를 쓴 시점과 긴 기다림을 살짝 엿보게 합니다. 기나긴 겨우내 멀리 떠나 있었을 오랜 벗이 봄이 한창인 어느 날 마침내 돌아온다는 소식에 개경의 길목이 되는 천수사天壽寺의 남쪽 문에서 해질녘까지 행인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최공의 모습이 선합니다.

이미 여러 분들이 이 한시를 곱게 번역하긴 하였으나 저는 다시 이렇게 번역해보았습니다.

천수문 앞에는 버드나무 솜 날리는데 / 술 한 병 갖고 와
내 오랜 벗 오길 기다리네
뚫어져라 살펴도 해는 먼 길옆으로 지고 / 오가는 이 참
많아 다가가 보면 그가 아니더라

이 시에는 두 종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겨울이었거나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 전 어느 날 천수문을 지나 남녘 먼 곳으로 오랜 벗을 보냈던 봄이 한창인 오늘, 아마도 사월이나 오월이었겠지요. 솜털이나 눈송이같이 버들개지가 날리는 바로 그날, 벗이 돌아온다는 기별을 받고 그 천수문으로 마중을 나오기까지의 긴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다림은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나절부터 환영주로 술 한 병을 가지고 해질녘까지 문을 들어서서 행인들을 눈이 빠지도록 바라보다 행색이 비슷해 보이면 달려갔

다가 친구가 아니어서 물리서기를 반복하는 당일의 조바심 나는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긴 기다림에 대해서는 잘 참았던 듯도 한데, 그날의 기다림은 왜 그리 견디기 힘들어 보이는 것일까 싶기도 합니다. 그 긴 기다림의 나날을 생각한다면 한나절의 허탕은 짧은 것인데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마음에 품고 담는 일은 이처럼 이상한 듯합니다.

어느 날 이 시를 다시 읽은 날이었습니다. 이 시를 쓴 분은 참된 벗의 소중함을 안다는 것과 그 시절에도 참된 벗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조바심의 이유가 거기에 있겠다 싶더군요. 지음知音의 고사도 그래서 나온 것일 겁니다. 뜻을 나누는 벗을 도반道伴이라 하지요. 도반은 내 마음에 담긴 벗이지만 도반이라 할 때는 위의 시에서 느껴지는 조바심 나는 기다림은 묻어 있지 않는 듯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일 텐데요. 첫째는 내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외롭지 않고, 짐작 없이 관계를 이룬 사람이기 때문일 겁니다. 이것은 '道伴'이라는 두 글자 중 '道'에 담긴 뜻입니다. 둘째는 그 친구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머지 글자 '伴'에 깃들여 있는 것이지요. '道'이든 '伴'이든 지속하기 위한 주체적 노력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인 듯합니다.

예전에 이런 시를 한편 지은 적이 있습니다.

「길이 아름다운 것은」

길이 있습니다. / 그 길을 / 사람이 걷습니다

본디 길이 생긴 것은 / 사람이 사람을 찾아 / 걸어서이고,

길이 아름다운 것은 / 사람이 찾은 사람이 / 바로 그 사람이어서이며,

서로를 위해 /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에 담은 사람이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는 사람이기를, 그리고 내가 그의 그런 사람이기를 바라고 노력해야겠지요.

마음에 담은 사람의 인연 가운데 가장 아린 것은 부모자식의 관계이며, 더욱이 멀리 떨어져 있다 영영 사별한 경우에는 몹시도 절절할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한 번씩 고향에서 소식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우체국에 가보았다. 그러나 언제나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고, 내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 언젠가 우체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알지 못하는 집 앞에 섰다. 그 집 정원에는 한 포기 파리가 서 있었고 그 열매는 햇빛에 빛났다. … 그 집에서 어떤 부인이 나오더니 왜 그렇게 서 있는지 물었다. 나는 가능한 한 나의 소년시절을 상세히 이야기했다. 그리고 곧 철이 바뀌어 눈이 내렸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먼 고향에서의 첫 소식을 받았다. 나의 맏누님의 편지였다.

지난가을에 어머니가 며칠 동안 앓으시다가 갑자기 별세하셨다는 사언이었다.”

이 인용문은 이미륵(본명 이의경) 박사의 자전적 소설 『압록강은 흐른다』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소설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이미륵 박사는 미륵부처님께 기도하여 얻은 자식으로 '미륵'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분입니다. 이분은 황해도 해주에서 구한말에 태어나 아버지에게서 한학을 배우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경성의전에서 서양의학을 공부하던 중 3·1운동에 적극 참여하였고, 상해임시정부 관련 활동을 하다 독일로 망명한 선각자입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독일에서 의학 공부를 계속하다 서양의학의 메마름에 마음을 돌려 전공을 동물학으로 바꿔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또 동양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그리고 문학가로 활동하다 6·25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51세의 짧은 생을 이역에서 마감하였지요. 그의 소설 『압록강은 흐른다』는 독일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아름다운 독일어 문체로 씌어졌는데, 2차 대전 종전 후 피폐해진 독일인의 마음을 치유한 아름다운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과장 없이 담담하게 유년기에서 독일유학까지의 과정을 낱알의 수필이나 회고담처럼 나열하여 구성된 이 소설은 하나의 상처이고 애절한 그리움



일 수 있는 이야기들을 스스로 치유한 사람의 맑은 영혼을 비추는 듯하였지요. 특히나 어려움 끝에 독일에 이르러 그분이 애타게 기다렸던 고향에서 온 첫 소식은 바로 어머니의 부고사건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를 담담하게 털어 놓으며 깊고 큰 아픔을 고스란히 부연하지 않는 파국적 결말로 보여주면서 마음 속 깊이 어머니를 묻고 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내려놓음의 극단적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시간에 쫓겨 살고 돈에 집착합니다. 사람에 목을 놓습니다. 세상이 빨리 변하니 불안한 탓일지도 모릅니다. 하여 이문제 시인의 「푸른곰팡이」라는 시가 떠오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름다운 산책은 우체국에 있었습니다 / 나에게서 그대에게로 편지는
사나흘을 혼자서 걸어가곤 했지요 / 그건 발효의 시간이었습니다
가는 편지와 받아 볼 편지는 / 우리들 사이에 푸른 강을 흐르게 했지요

그대가 가고 난 뒤 / 나는,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우체국이었음을 알았습니다 / 우체통을 굳이 빨간색으로 칠한 까닭도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들에게 /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었지요

이 시에서 저는 ‘아름다운 산책’, ‘발효의 시간’ 그리고 ‘푸른 강’이란 세 가지 시어가 참 마음을 울린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누구를 마음에 담고 그리워하며 편지를 쓰는,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우체국을 향하던 유치환 시인의 통영 우체국이나 안도현 시인의 변산 바닷가 작은 우체국으로 가는 길은 참으로 아름다운 산책일 것입니다. 조바심의 산책이 아닌 것은 그도 나를 그리워하고, 그의 마음에 내가 담긴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리움이 불타면 감정의 온도차로 인해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법이지요. 아랫목에 슬며시 이불을 덮어두고 사나흘 두고 보는 발효의 시간은 역시 믿음에 담긴 기다림이겠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푸른 강은 무엇일까요? 색과 강폭이 주는 원근감遠近感을 생각해봅니다. 발효의 푸른곰팡이가 주는 기다림, 여유, 부패가 아닌 발효의 선한 결과를 담은 색, 그것은 회색이나 검은 색의 대칭적 색인 푸른색이겠지요. 또한 건널 수 없는 바다, 시퍼런 물이 아니라 서로 얼굴을 보고 이름을 부르며 나란히 아래로 걸어가면서 얕은 곳을 찾으면 그냥 건널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기요!’ 하고 몇 번 외치면 수영이 하얏고 약간 별에 그을린 얼굴이지만 넉넉한 웃음으로 나를 건너게 해 줄 사공이 쪽배를 들고 올 것만 같은 것이 바로 그런 따뜻하고 안심되는 강인 것이지요. 이 정도의 거리라면, 그런 강이라면 서로를 위하고 이해하는 적당한 원근감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누구를 두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고, 또한 어디를 가도 그 사람이 꼭 붙어 있어야 한다면 이것은 짐착일 것입니다. 짐착의 근원은 갈애渴愛에 있을 것 같습니다. 채우지 못한 어릴 적 사랑의 허기가 어른이 되어서도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지요. 어찌면 그의 부모가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한 부실함을 가졌거나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찌면 지나친 욕심으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사람을 잡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묵은 상처와 저마다 짓는 허물들은 모두 내려놓음을 막는 장애가 될 것입니다.

사람을 마음에 담는 것은 본능적인 일이기도 하고, 지극히 이성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배고픔의 문제나 추위의 문제에서 비롯된 고통이나 질병들은 오늘날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는 사람을 마음에 담는 문제로 병이 나거나 가지고 있던 질병이 더 심해진 이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마음에 담는 것은 내려놓는 것이기도 하고, 번뇌를 잡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며, 담는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인가에 달린 문제겠지요.

내려놓음의 가르침을 담은 말 방하착放下着에서 ‘着’의 의미는 지속성입니다. 지속성에는 노력과 애씀이 뻗어 있지요.

입춘도 지나고 우수도 지났습니다. 멀리 대관령 너머에는 그래도 아직 눈 치우는 것이 걱정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내 버들개지가 반가운 첫눈처럼 날릴 것이고, 누군가 사람을 담아 아팠던 것도 담담해져 다른 이의 아픔을 치유하는 지혜와 여유가 될 것입니다.

좀 구식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문득 따뜻한 편지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기를 놓고, 컴퓨터를 끄고, 마른 만년필을 씻어서 푸른 잉크를 넣고 무더진 글씨를 좀 매끄럽게 한자 한자 적어가면서 저마다의 도반에게 편지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푸른곰팡이가 슬기를 바라면서 밥풀로 겹봉을 봉하고, 침을 발라 우표를 붙인 다음 아름다운 산책길을 나서 빨간 우체통을 찾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앞에 놓인 푸른 강을 보며, 며칠이고 답장을 설레면서 그리고 확신하면서 기다려야겠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를 담기 위해 내 마음을 크고 넓게 하여 그가 기꺼이 내 마음에 깃들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이 봄에는, 35



김동일 님

1967년 경남 창원생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및 대학원졸업

한의학박사, 한방부인과전문의

한방부인과학회 부회장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동국대학교 일산분교한방병원 병원장



나의 인연, 나의 부처님

김명숙(慈苑) /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수간호사

황량하던 겨울 들판은 봄을 기다리는 생명을 품었기에 파스하고 포근하였다.

이제 황량하던 겨울도 지나고 눈 속에 새싹들이 첫 마음으로 기지개를 펴고 파릇하게 돋고 소담한 꽃들이 장엄하는 봄의 길목에 들어섰다. 봄은 마음 어린 사람들의 설렘으로 온다. 이 봄 그 찰나의 마음들이 가당찮은 영원을 꿈꾸면서부터인 것을. 그래서 아프면서도 얼굴을 붉히며 그렇게 봄은 온다.

막연한 설렘을 갖게 하는 계절 그래서 봄처럼 부지런해지고 싶은 날이다. 마음 통하는 도반과 함께 하늘 닿은 산사에 봄이 오는 소리를 들으러 가고 싶다. 지난날 그 설레던 첫 마음을 조심스레 살포시 꺼내 회상하며 빛바래가는 나의 푸른 서원과 초발심을 다져본다.

이십여 년 전이다. 어느 나환자촌에 의료봉사 갔을 때 마주한 첫 봉사의 ‘가벼운 마음’은 곧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문둥이시인 한하운 님의 “보리피리”와 “전라도길”에서 느낀 알팍한 서정만이 내가 그들을 이해하려고 한 전부였다. 그곳에서 목격한 나환자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큰 충격이었다. 손가락은 떨어지고 코는 짓물러 터졌으며 움푹 들어간 눈은 살로 덮여 보이지 않았다. 콧속을 파고들던 냄새도 곤욕이었다. 방을 돌아다니며 간신히 상처를 소독하고 치료하고 그렇게 잠을 내 잠시 쉬고 있는 나에게 누군가 다가와 수고했다며 떡을 건넸다. 헛구역질이 나왔다. 떡은 목구멍을 넘기지 못했다. 몽글몽글, 가슴 밑바닥에서 한 가지 물음이 피어올랐다.

“나에게 환자는 어떤 의미일까?” 또 분별하는 이 마음은 무엇일까?

그렇게 무언가 둔기로 맞은 듯 나를 멍하게 했던 그날의 인연, 그날 내가 품었던 그 의구심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고 앞으로 내가 걸어갈 길을 열어주었다. 간호사인 나에게 환자는 늘 곁에 있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존재이다. 그들을 통해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병원에서 마주치는 환자들도, 봉사에 대한 막연한 설렘에서 대면했던 나환자촌에서의 한센병 환자들도 모두 나 자신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스스로 마음을 점검하며,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들은 모두가 부처님이었다. ‘환우를 부처님처럼.’ 이 다짐은 이후 지금까지 나의 삶을 관통하는 작은 화두가 되고 있다.

부처님 인연으로 불교병원에 입사하여 수많은 환우들과 스님들과 불자들과 함께 호흡하며 현재까지 불자로서, 간호사로서 일을 하고 때로는 전국의 사찰과 재방선방, 승가대학, 지역의 복지관은 물론 해외의 의료봉사, 국내외 재난지역까지 곳곳을 다니며 인연 따라 의료봉사활동을 다닌다. 오랜 기간 나에게 불교는 잘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어머니 품처럼 편안하다.

어린 시절부터 신심 깊은 어머니의 불연佛緣의 씨앗이 싹을 틔워 향을 전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눌 수 있음에 행복하다. 아직도 구슬을 바라보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조석으로 예불을 올리시는 모습이 나에게 일상의 풍경으로 자리한다. 나에게 어머니는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오신 또 다른 부처님이다. 오늘도 “환우를 부처님처럼” “나눔은 수행의 으뜸입니다”라고 되뇌며 나를 관조해본다.

불자로서 내가 가진 것에 항상 감사하며 지금 가장 행복한 삶, 그리고 회향하는 삶을 살리라 다짐해본다. 그 첫 마음자리 되새기며 범망경梵網經의 부처님 말씀을 늘 마음 속에 둔다.

“너희 불자는 모든 병든 이를 보거든 항상 공양하되 마땅히 부처님과 다름없이 여겨야 한다. 여덟 가지 복전福田 가운데 병든 이를 간호하는 것이 가장 으뜸가는 복전이니라. 만일 부모나 스승이나 스님이나 제자가 병이 들어 팔 다리나 기관이 온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병으로 고뇌하거나 이들을 다 공양하여 다투게 해야 하느니라.”

지심귀명례至心歸命禮!

지극한 마음으로 예불 올리며 나를 가다듬어 처처에서 때로는 환우로, 때로는 도반으로 나투시는 나의 부처님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불 올린다. 약사여래부처님의 12대원이 서려 있는 이곳 불교병원에서 보현행자로서 또한 약왕보살의 작은 화신으로 같은 뜻을 지니고 숨쉬는 도반들이 있어 이 얼마나 다행이고 고마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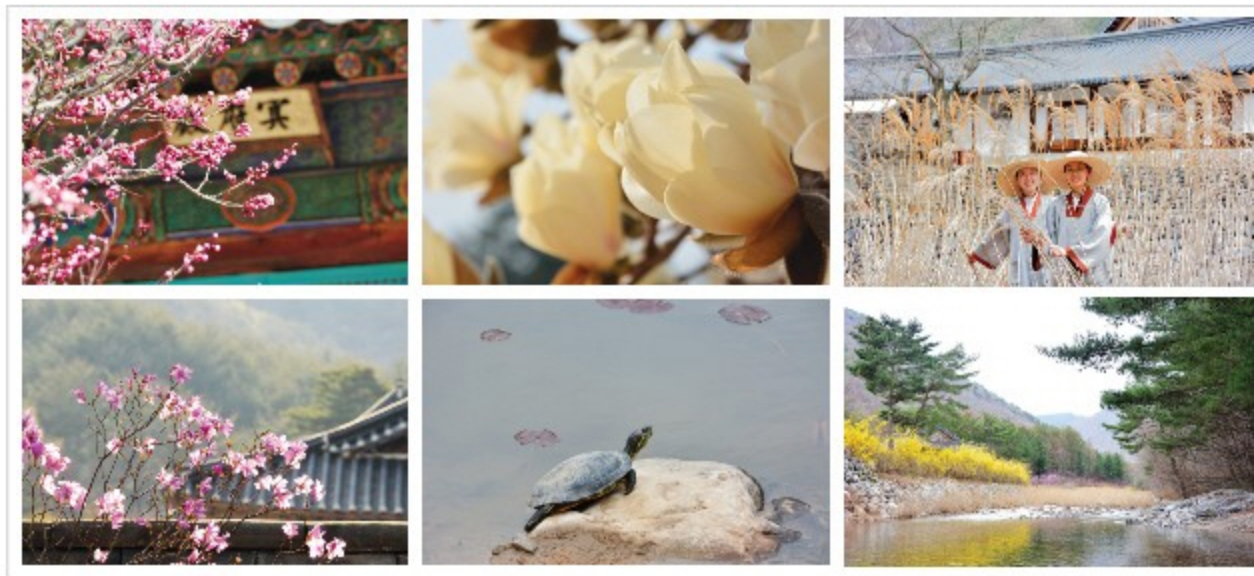
요즘은 인연을 따른다는 수연隨緣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행을 하고 있느냐? 매일 매일 습관처럼 독송하는 반야심경에서의 ‘무소득無所得’과 금강경의 ‘무아법無我法’이라는 의미도 나라는 아상과 내 것이라는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경책으로 다가온다. 아상과 집착을 버리면 버려지는 것만큼 마음은 지혜롭고 대상에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나의 직장이자 수행터인 우리 동국대일산불교병원, 매일 아침마다 상적광도 예불자리 한줄기 향 사르고, 마음 가다듬어 ‘계향戒香, 정향定香’ 나의 근본 스승 ‘시아본사 석가모니부처님’과 고해 중생의 병고와 번궁과 재난을 구제하여 성불의 길로 나아가게 함을 서원하신 약사여래부처님을 예경하고 찬탄과 감사의 합장을 올린다.

나는 오늘도 알게 모르게 지은 나의 업장을 참회하며 도반들과 함께 수행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일과 하루를 시작한다. 당나라의 선승 임제 선사의 말씀처럼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의 마음으로 내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주인 되고 환우들께 올리는 공양이 그대로가 부처님께 올리는 참다운 공양이라. 올해에는 편편하고 끝은 직선의 길이 아니라 울퉁불퉁 길을 천천히 걸어봐야겠다. 그렇게 걸어 걸어가다 보면 만나는 부드럽고 완만한 곡선의 길도 때론 험령하게 쉬어가며 함께 걸어볼 생각이다. 굴렁쇠처럼 습관적으로 구르던 세월의 관성만큼 분명한 관성들은 그 어디에도 없음을, 또 그런 나의 관성들이 탄력을 받아 멈출 수 없음을 알기 전에 부처님의 지혜로써 멈추게 하련다. 그리하여 올해는 강하고 깨끗한 것을 버리고 온화함으로 가득하며 고귀한 발원으로 올리는 치유의 기도이길 서원해본다.

나의 인연, 나의 부처님! 마하반야바라밀. ॐ



김명숙님은 1989년 동국대학교 의료원에 입사하여 현재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수간호사로 재직 중이며 현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총동창회 이사, 전국병원불자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20년간 국내외 지역사회, 이주근로자 의료봉사, 아이티 대지진 등의 재난지역긴급구호참여, 전국 사찰의 선방이나 강원 등에서 정진 중인 스님들과 중앙승가대학교에서 학인스님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승가의료봉사활동 및 약 공양을 진행해오고 있다.



봄이 머무는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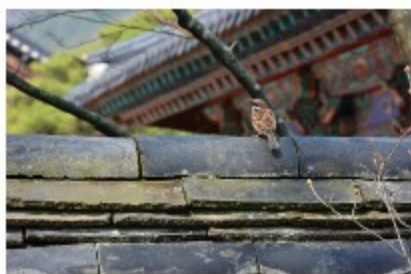
숲 꽃에는 향기가 끓이지 않고

털 풀은 새롭게 푸르름이 더해지지만

보이는 것 밖에 언제나 있는 봄은

오직 고요한 사람이라야 알 수가 있지

- 이서구(조선시대) -



눈부신
봄날



마음 소 길들이기

태우 / 사집과

눈부신 봄날입니다. 꽃이 만발합니다.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꽃이 피어나기 때문에 봄이 온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흔히 봄이 오면 꽃이 핀다고 말하지만, 꽃이 피어나기 때문에 봄이 온다고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꽃이 우연히 피지는 않습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꽃이 피고 지는 것 같지만 한 송이 꽃이 피기까지의 그 배후에는 인고의 세월이 떠받치고 있습니다. 모진 추위와 눈바람, 더위, 혹심한 가뭄과 장마, 이런 악조건에서 꺾이지 않고 꿋꿋하게 견뎌 온 나무와 풀들만이 참고 이겨낸 그 세월을 꽃으로 혹은 잎으로 펼쳐 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꽃과 잎들을 보면서 나 자신은 이 봄날에 어떤 꽃을 피우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는 마음으로 차례법문에 임한 사집반 태우입니다.

어떤 꽃과 잎을 피우고 있는지, 꽃으로 피어날 씨앗을 일찍이 뿌린 적이 있었는가? 준비된 나무와 풀만이 때를 만나 꽃과 잎을 열어 보이듯, 준비된 사람만이 계절을 만나서 시절인연을 만나서 변신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합니다.

부처님 당시 바라드바자라는 바라문이 음식을 나누어 줄 때, 음식을 받기 위해 한쪽에 서 있던 부처님을 보고 말합니다.

“사문이여, 나는 발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발을 갈고 씨를 뿌린 후에 먹습니다. 당신도 발을 갈고 씨를 뿌리십시오. 갈고 뿌린 다음 드십시오.”

그러자 부처님이 말합니다.

“나도 발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갈고 뿌린 다음에 먹습니다.”

이에 바라문은 다시 되묻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쟁기나 호미, 소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나도 갈고 뿌린 다음에 먹는다.’라고 하십니까?”

부처님이 대답합니다.

“나에게 믿음은 씨앗이요, 고행은 비이며, 지혜는 쟁기와 호미, 의지는 쟁기를 매는 줄입니

다. 몸을 조심하고 말을 삼가며 음식을 절제하여 과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진실을 김매는 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부드러움과 온화함이 내 소를 쟁기에서 떼어 놓습니다.”

즉, 부처님 자신은 마음의 밭을 간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밭, 참으로 광대무변한 공간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수행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부지런히 밭 갈기에 힘써야 할 그 밭에는 쟁기조차 갖추지 않은 소 한 마리가 딱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치문 첫 철, 믿음이란 씨앗 대신 먹물 옷이 내게 맞는 옷인가란 의심을, 새벽 세 시에 열리는 몽롱함과 긴장이 뒤섞인 하루의 시작, 끊임없는 습의, 지적사항, 운력, 인수인계, 다양한 소임이 메마른 고행으로 다가오고, 익숙하지 않은 일정을 넓은 도량에서 소화하다 보면 고단한 몸이 먼저 꺾이며 잘 살아내겠다는 의지는 자취를 감추곤 했습니다. 부드러움과 온화함보다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예민해집니다.

의심과 메마름과 고단함과 두려움을 먹고 자란 소가 별떡 일어나 운문사 밖, 저 멀리 달아나려고 합니다. 워낙이 초심자의 마음엔 소가 한 마리 들어 있단다. 그것도 엉덩이에 뿔이 난 소가. 멀리 내보내더라도 다독여 데려오고, 때때로 엉뚱한 길로 들어서거나 한 눈 팔 때도 이라 이라 하면서 지 가던 길로 몰아갈 줄 알아야 하고, 그러자면 고삐를 쥐었다 풀었다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은사 스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내달리던 녀석을 어기어기 끌고 와 제 자리에 묶어둡니다. 그리고 종두소임과 여름불교학교, 가을 동문화 행사, 겨울 김장을 하면서 온몸을 다해 근력을 씁니다. 게다가 저는 성격도 엄청 급해 학대에 가깝게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그런 제게 상반스님이 한 마디 합니다. “운문사에서 4년 살아야 하는데 태우 스님처럼 하면 일 년 만에 몸 다 망가져요. 살살 해요.” 그렇습니다. 상반스님의 말은 언제나 정직하게 따르는 것이 수입니다. 왜냐면 제가 걸어가는 길을 먼저 걸어갔기에 그 굴곡을 다 알 것입니다. 살살 하라는 말 속에는 대충하거나 태만하라는 게 아니고 같이 하라는 뜻일 겁니다.

그제야 돌아보니 제 주변에는 삼십여 명의 도반 스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저와 같은 소 한 마리가 들어 있어 마음 밭을 일구기도 하고 때로는 날뛰는 녀석이 분탕질을 할 테고, 가끔은 너무 잠잠해 목정밭이 되기도 할 겁니다. 선배스님들이 걸어갔던 길, 그 위로 어른스님들이 일군 운문사란 수행 밭에 저와 반 스님들은 한 알의 씨앗으로 뿌려진 게 아닐까요? 그 씨앗에서 꽃과 잎을 피우기 위해 4년 간 준비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손에 흙을 묻히며 농사를 짓는 원두반입니다. 기대에 차 있습니다. 마음 밭에 살고 있는 소를 부리며 또 일 년을 잘 살아내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



『緇門』에 나타난 불교 수용 양상 1

동우 / 사집과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삼교三敎 회통
2. 격의불교格義佛敎
 - 1) 중국 불교와 도가
 - 2) 중국 불교와 유교
3. 선종의 개화

III 결론

I 서론

傳에 云明帝永平十三年에 上이 夢神人하니 金身丈六이요... 有佛이 出於天攄이라하야늘...乃遣使往求하야 備獲經像과 及僧二人하다.

법본내전¹⁾에 이르기들 명제 영평 13년에 황제가 신인 꿈을 꾸었는데 금색 몸이 1장 6척이요... ‘부처님이 천축에 나셨다’ 하거늘 이에 사신을 보내어 가서 구하게 하여 경전과 불상 및 승려 두 명을 함께 얻어왔다.²⁾

위의 문장은 「漢顯宗開佛化法本內傳」에 기록된 불교의 중국 초전에 관한 내용이다.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異說은 『열자』에서 공자가 말한 ‘서방에 성자가 있다’는 설, 진시황 4년 18현자가 불경을 가져왔다는 설, 전한 무제 때 휴도왕이 모셨던 금인을 얻어 궁에 안치하였다는 설, 전한 때 인도에 사신으로 갔던 장건이 부도의 가르침을 들었다는 설, 한무제 때 동방삭과의 대화에서 예상한 설 등이 있으나 후한 명제 때의 감몽구법설感夢求法說이 공인된 가장 주된 설이다.³⁾ 이와 같이 불교는 전한시대부터 어떤 형태로든 전해졌다고 볼 수 있다. 불교가 중국에 전파되어 자리잡기까지 유일한 방법은 중국 고유의 풍속, 습관, 사상, 신앙과 가능한 친밀하게 결합하고 조화되어가야 하는 것이었다.(이러한 내용은 노자가 오랑캐 땅에 들어가 古月人을 교화했다고 하는 「老子化胡說」에도 기록되어 있다.⁴⁾

본인은 「치문」에 수록된 문장을 통해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중국적인 종교로 변용하고 발전하였는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치문」에는 외래 종교인 불교를 어떻게 중국화시켰는지에 대한 내용은 비교적 소략하게 실려 있다. 그러나 내용 가운데 「右街寧僧錄勉通外學」에서 밝히고 있는 삼교(유교, 불교, 도교)의 회통이 보이는 몇 가지 단서에서 중국 불교가 전통 사상과 함께 발전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불교가 유교, 도교와 어떤 관계에 있었으며, 격의불교의 시대를 거

처 어떻게 중국적 불교로 개화되어 갔는지에 관해 살펴봄으로써 함께 배우는 동학들과 「치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II 본 론

1. 삼교三教 회통

‘도’에 대하여 불교에서는 ‘깨달음(覺)’, 유가에서는 ‘윤리도덕倫理道德’, 도가에서는 ‘무위無爲’를 추구한다. 유가에서 언어의 이해방식에 있어서는 도를 싣는 도구(載道之器)라고 하며, 불가에서는 미혹한 중생에게는 강을 건너기 위한 배라는 의미로 이해한다. 이는 ‘도’라는 것을 한마디로 ‘爲人’, 즉 ‘사람을 위하여, 사람이 행하는 것’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문장은 ‘도’를 지향하는 삼교의 입장이 서로 다르지만, 각각 필요에 의해 함께 발전하였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吾宗致遠은 以三乘法으로 以運載焉이나…其或
微解胡語하면 立便馴和矣리라 是以로 翫鑿齒를 道

安이 以該諧而伏之하며 宗雷之輩를 慈遠이 以詩禮而誘之하며…況乎儒道二教가 義理玄遊하니 釋子가 既精本業이면 何妨鑽極이리오 以廣見聞하야 勿滯於一方也이다.

우리의 종이 멀리까지 이르는 것은 삼승법으로 실어 나르는 까닭이나…혹 오랑캐말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곧 길들여 유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습착자를 도안⁵⁾이 우스개 말로 조롱했으며, 종병과 뇌차종의 무리는 해원⁶⁾이 시경과 예기로 그들을 이끌었으며 … 하물며 유교와 도교 두 가르침이 뜻과 이치가 현묘하고 아득하니 석가의 아들이 이미 본업을 정밀하게 하였다면 어찌 깊이 연구하는 것이 방해로우리오. 널리 보고 들어 한 쪽에만 구애되지 말지이다.⁷⁾

도안과 해원은 위진시대 불교가 중국에 유입된 후 중국 불교를 대표하고, 교단을 형성한 중국불교 사상 중요한 고승들이다. 도안은 중국불교의 실질적인 개척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경전 주석에 힘썼다. 도안의 제자인 해원은 도안의 「반야경」 강의를 듣고 유교와 도교를 버리고 출가하였다. 후에 해원은 승려가 되어서 연구를 하거나 설법할 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불교이념을 설명하기 위해 도교나

1) 법본내전法本內傳: 작가미상, 후한 명제 때 황로도黃老道の 도사들과 불교의 승려들이 황제 앞에서 각 따의 경전을 불태워 영험을 다투던 일을 기록한 책 「홍명집」의 「모자이혹론」, 「광흥명집」 제1의 귀정편에 이 글의 전문이 실려 있다.

2) 본고는 2003년 운문승가대학출판부에서 발행한 「정선현토 치문」을 기준으로 하였다. 「치문」의 「한현종개불화법본내전」 〈호법〉편 p.212

3) 검전무웅(정순일 譯), 「중국불교사」, 경서원, 1996, pp.27~29 참조

3) 검전무웅(장휘옥 譯), 「중국불교사-초전기의 불교」 창송, 1992, pp.317~328 참조.

4) 「繼門鑒訓」은 중국 北宋 때 태현온제(懷賢齋主 ?~1130)가 고승대덕 및 여러 성현들의 경계 삼고 교훈 삼은 만한 글들 중 가장 우수한 문장만을 모아 엮은 책이다. 따라서 작자로는 스님뿐 아니라 황제, 문호, 역사가나 거사 등 다양한 계층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대적으로는 唐·北宋代의 문장이 주류를 이루지만 「집명」·「호법」에는 隋·梁·隋代에 쓰여진 문장이 폭넓게 수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도안(道安, 동진東晉 314~385): 흔히 석도안이라 불리고, 초기 중국 불교의 기초를 닦은 대표적 학승이다. 불도징에게 사사하고, 「반야경」 등 조직적으로 불경 번역에 참여하였다. 여러 경전의 목록을 작성하고 승려들의 계법을 작성, 승려는 성씨를 「석釋」씨로 하자고 주장하는 등 중국 전통 사상을 매개로 불교를 해석하는 격의방식을 비판해서 경전을 직접 연구하는 방법을 수렴하는 등의 공적을 남겼다. 「중국역대불교인명사전」, p.83

6) 해원(慧遠, 동진 334~416): 여산 백련사의 개조, 13세에 이미 육경 연구, 노장학에 정통, 21세에 도안을 찾아 수행, 후에 뜻이 맞는 123인과 백련사 결성, 30년간 역경에 힘썼다. 대표 저서인 「사문불경왕자문沙門不敬王者論」에서 “재가자는 왕법(나라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도 속세를 벗어나 생사를 뛰어넘은 출가자는 자비심으로 황제 이상으로 백성을 어루만져 줄 수 있다”고 논하였다. 「중국역대불교인명사전」, p.456

7) 「치문경훈」의 「우가령승록면동외학」〈면학〉편 p.81

유교의 용어에 크게 의지하여 설명하였다고 한다.⁸⁾ 문장의 내용에서 보듯이 이 두 인물이 당시 중국의 대표적 지식층들과의 대화에서 승복을 받았다는 것은 불교가 유교와 도교의 지식층을 조복받고, 불교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삼교의 교섭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잡록〉편에 실린 「우가녕 승복삼교총론」에는 신불멸神不滅, 윤회와 사후세계에 관한 입장이 실려 있어 더욱 삼교 회통의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釋氏之門은 周其施用하여 以慈悲로 變暴惡하고 以喜捨로 變慳貪하며 以平等로 變冤親하고 以忍辱으로 變瞋恚 하며 知人死而神明不滅하고 知趣到而受業遷生하여 賞之以天堂하고 罰之以地獄이 如範脫土하고 若模鑄金이라.

석씨의 문장은 배풀어 쓰기를 두루하여 자비로써 포악함을 변화시키고, 희사함으로써 아끼고 탐냄을 변화시키고, 평등으로써 원수와 친함을 변화시키고, 인욕으로써 성냄을 변화시키며, 사람은 죽더라도 신명은 멸하지 않음을 알고 또한 윤회의 사후세계에 도달하더라도 업을 받아 환생함을 알아서 천당으로써 상을 주고 지옥으로써 처벌함은 마치 흙을 떨어버린 거꾸집과 같고 쇠를 부어 만든 모형과 같습니다.⁹⁾

유·불·도 삼교는 당시 모든 사회적 문제와 연관되어 전체적으로 깊은 영감을 주고 받으며 한

께 발전하였다.¹⁰⁾ 사회적 혼란기에 전통 사상인 유교와 도교는 지식만을 내세웠고, 새로운 대안으로 나타났던 노장사상은 도피적이고 온건적인 성격으로 정치적 대안이 되지 못한 채 지식층의 위안거리로만 삼을 수 있을 뿐이었다. 당면한 현실적 문제상황의 해결책으로 역사상 많은 군주와 학자들은 새로운 국가와 사회의 존재를 확립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불교를 택했을 것이다. 이렇게 불교는 전래된 후, 때로 왕권의 보호¹¹⁾를 받기도 하고, 유교와 도교의 지식층들에 배척¹²⁾을 당하기도 하는 과정에서 더욱 중국적으로 변용하여 발전할 수 있었다.

2. 격의불교格義佛敎

‘황면노자黃面老子’, ‘황면노옹黃面老翁’¹³⁾, ‘서방성인西方聖人’은 모두 노자와 같은 위대한 성인을 빗대어 부처를 가리키는 말이다. 인도의 불교가 도가의 노장사상과 습합을 통해 중국화 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다. 격의불교格義佛敎는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했던 위진 시대魏晉時代(220~420)에 성행하였다. 격의란 ‘의의를 격(量)한다’라는 뜻으로 불교를 처음 접하는 중국인들에게 불교 사상들의 용어를 비슷한 것끼리 비교하는 것을 통해 유교나 도교의 노장사상에 있는 비슷한 개념을 차용하여 불서를 이해시키는 것

8) 김전무웅(정순일 譯), 「중국불교사」, 경서원, 1996, pp.79~81 참조

9) 「치문」의 「우가녕승복삼교총론」(잡록)편 p.252

10) 첸파핑, 「한권으로 읽는 유교」, 신학자, 2008 p.4 참조

11) ‘舊老老子하야 宗尙符圖러니 窮討根源하니 有同妄作일세 帝乃躬運身筆하사 下詔尙道하시니……事在正法之中하야 長淪惡道인정 不樂依老子敎하야 暫得生天하야 涉大乘心하야(예전에 노자를 섬겨 부처와 도참을 높이 숭상하였는데 근원을 궁구히 검토해보니 망령되어 지은 것과 같음이 있음 일세 황제께서 이에 몸소 신령스런 붓을 움직여 조서를 내려 도교를 버리게 하셨으니……처러리 정법 가운데 있으면서 길이 악도에서 노자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잠깐동안 하늘에 태어남을 즐기지 않을 것이다.) 「치문경훈」의 「양향사도사불소」(호법)편 pp.223~225

12) 불교에 대한 유교와 도교의 전통사상들의 도전은 ‘삼무일종三武一宗의 법난’이 대표적이다. 남북조 시대의 두 무종 즉 북위의 태무제, 북주의 무제가 박해하여 승려를 환속시키고 사찰을 파괴한 것, 당나라 무종의 폐불, 오대 후주 세종의 폐불 사건을 말한다. 불교박해의 원인은 국가재정상의 문제, 도교와 불교의 첨예한 대립, 교단의 타락 등을 들 수 있다. 아서라이트, 「중국사와 불교」, 신서원, 1994, p.78 참조

13) 「鐘山鐵牛印」(龍師示童行法晦) (유계)편 p.97 ; 「廬山東林混融龍師示衆」(시중)편 p.197

이다¹⁴⁾. ‘空’을 노장의 ‘無’로, ‘열반涅槃과 해탈 解脫’을 ‘무위無爲’로, ‘진여眞如’를 ‘본무本無’로 이해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또 용어 뿐 아니라 법수法數를 이용하여 불교의 ‘오계五戒’를 유가의 ‘오상五常’과 대비시켰고, 유가의 중요한 윤리 사상 중 하나인 ‘중용中庸’은 ‘중도中道’로 대비시켜 이해하기도 하였다. 또한 초기에 불경의 번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안세고¹⁵⁾는 ‘오음五陰’을 ‘원기元氣’와 ‘오행五行’으로, ‘제행무상諸行無常’과 ‘제법무아諸法無我’는 ‘비상非相’과 ‘비신非神’의 개념을 이용해 번역하였다. 불교 학자들의 노력은 불교가 외래 종교라는 낯설음과 경계심을 완화시키고 장점을 부각시켜 전법의 효과를 거둘 뿐만 아니라 전통 사상과의 일치점, 보완점들을 발견함으로써 중국 사상체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1) 중국 불교와 도가

중국의 초기불교는 중국 전통 사상 중 특히 도가의 노장사상에서 그 유사성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도교는 도가의 기본 사상과 달리 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초기에 불교 역시 도교의 한 신처럼 초자연적인 힘에 의지하는 신앙 체계로 이해하였다는 것은 「치문」의 「洪州寶峰禪院選佛堂記¹⁶⁾」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초기 중국

불교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하였는데, 불교의 반야학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을 도가의 ‘현학玄學’이라 한다¹⁷⁾. 현학은 ‘玄遠之學-현묘하고 심오한 학문’이란 뜻이다. 「치문」에 수록된 내용 중 불교의 오묘한 이치를 서술한 표현으로 ‘현문玄門, 현교玄教, 현종玄宗’ 등이 있는데 이것은 ‘도’에 대한 이해를 도가의 현학과 같은 오묘한 것에 견주어 표현하고 이해시키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치문」의 「위산대원선사경책」에 나타난 ‘현玄’의 글자가 활용된 예이다.

- 玄道에 無因契悟
현묘한 도에 계합하여 깨달을 인이 없다
- 心契玄津하야 研幾精妙하며 決擇深奧하야
마음은 현묘한 나루터에 계합하야 묘한 이치를 연구해 다하야 심오하고 깊은 이치를 결택하야...
- 此之一學은 最妙最玄이니
이 한 배움이 가장 묘하고 그윽하니¹⁸⁾

그러나 구마라집¹⁹⁾의 대규모 역경 사업이 있기 이전 시대, 지식층들의 불교에 대한 이해는 불완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가의 ‘無爲’란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것을 말한다면, 불교의 ‘無爲’는 생사윤회의 업을 소멸시킨 해탈의 경지를 말한다. 노장사상과 불교의 습합 과정에서 격의格義가 오히려 격의隔意(의미가 막혀 다르게 해석되다)

14) 김진무, 「위진시기 현학과 반야학의 관계연구」, 동양철학계시판 논문 참조

15) 안세고(安世高, ?~170?) : 중국 불교 초기의 역경승, 안식국의 왕자로 148년부터 20년간 번역에 종사했으며 「안반수의경」, 「음지입경」, 「아비달마오법사제」, 「십이인연」 등 34부 40권의 경전을 번역하였다. 「중국역대불교인명사전」 p.243

16) 崇寧天子가 賜馬祖塔婆慈應하시며 諡曰祖印이라 하시고 歲度僧一人하야 以奉香火러니, (송녕(1102~1107) 천재(취종 1100~1125)가 마조의 답호를 지응이라 하사하시며 시호를 조인이라 하시고 해마다 승려 한명을 득도시켜 향화를 받들게 하였으니... 「치문경훈」의 「홍주보봉선원선불당기」, 「기문」편 p.146

17) 김진무, 「위진시기 현학과 반야학의 관계연구」, 동양철학계시판 논문 참조

18) 「치문」의 「溫山太園禪師警策」 〈경운〉편 p.20, pp.24~25, p.26

19) 鳩摩羅什(Kumārajīva, 344~413)은 오호십육국 시대 후진의 학승, 중국어로는 동수童壽, 구자국 출신이며 소승불교를 배웠으나 대승에 귀의했다. 태안 원년(385) 양주에서 불법을 설파하고, 후진 흥시 3년(401) 장안에 들어가 불경을 번역하였다. 일생 동안 번역한 경론은 총 74부 3백 84권에 달했다. 「고승전」

가 되어버린 것은 당시 미성숙한 불교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²⁰⁾ 이러한 문제에 제동을 걸었던 인물이 바로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도안이다. 불교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지는 그의 격의 불교에 관한 입장은 「치문」의 한 문장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安이 曰先舊格義多 於理에 多違로다. 光이 曰且 當分析遠近因證 何容是非先達이리오

安이 曰弘贊理教因댄 宜令允愜이니 法鼓競鳴에 何先何後이리오

도안이 말하길 “옛날의 격의도 이치에 어긋남이 많음이로다.” 승광이 이르길 “우선 마땅히 분석하고 소요할지언정 어찌 선달을 시비함을 용납하리오.”

도안이 이르길 “가르침을 넓게 밝힌진댄 마땅히 참된 이치에 부합해야 하니 법고가 다투어 울림에 (법을 선양함에)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나중이겠는가²¹⁾”

구마라집의 제자 승조²²⁾는 격의 불교에서 탈피하여 불교사상을 더욱 불교적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중국의 번역승 및 지식층들에 의해 가장 크게 논의되었던 것은 반야학의 ‘空’ 사상이다.²³⁾ 논의가 되었던 ‘空’의 개념을 ‘無’로 보았던 노장의 사상은 반복 강조, 연속성, 언어의 상호의존성에 있다. 그러나 노장의 ‘無’는 ‘有’에서 비롯하여 생긴다는 논리는 불교의 ‘空’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

게 하였다.²⁴⁾ 이에 승조는 ‘사구백비四句百非’²⁵⁾를 인용하여 ‘空’이란 유와 무를 떠난 일체의 분별을 초월한 것이라고 하여 반야의 본질을 밝히려고 노력하였다. 다음은 비유비무非有非無의 도리가 잘 나타난 문장이다.

故로 見습이 爲易요 無我が 爲難이며 無我が 爲易요 故로 견해가 계합되기는 쉬우나 我가 무이기는 어려우며 我가 무이기는 쉬움이요

無無가 爲難이며 無無가 爲易요 亦無無無가 爲難이며

무가 무이기가 어려우며 무가 무이기가 쉬우며 또 무가 무하며 무이기는 어려우며

亦無無無가 爲易요 亦無無無가 亦無도 爲難이며 亦無無無가 亦無도 爲易라.

또한 무가 무하여 무이기는 쉬우며 또한 무가 무하여 무하기가 또한 무한 것이 어려우면 또한 무가 무하여 무한 것이 또한 무한 것도 쉬움이라.²⁶⁾

이렇게 중국의 불교에 대한 노장적 사유는 ‘空’ 사상의 이해와 함께 더욱 발전하여 중국인의 생명관, 자연관, 우주관, 인생관, 국가 통치관 등의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결국 중국적 불교인 ‘선종禪宗’을 개화하는 데 한 초석이 다져지게 된다. ☸

〈 다음호에 계속 〉

20) 계환 스님, 「(홍명집)에 보이는 유불도 삼교의 교섭에 대한 고찰」, 종교교육학연구 제31권, 2009의 논문에 나타난 내용을 근거로 하였다.

21) 「치문」의 「고소경덕사운법사무학십문(변화)편」 p.75

22) 승조(僧肇, 384~414) : 유교와 역사의 고전에 능통하며, 노장 사상을 좋아하였으나 「유마경」을 읽고 불교에 귀의하였다. 도생, 도용, 승예와 함께 구마라집의 사칠四哲 중 한 명이며, 논문집 「조론(肇論)」은 대승의 ‘공’사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준 것으로 중국불교에 큰 영향을 미쳤다. 「중국역대불교인명사전」 p.229

23) 반야계의 ‘공’사상에 대한 이설異說은 육가칠종으로 분류한다. ①지둔의 족색의對色義, ②도안의 본무의本無義, ③축도장의 본무의本無義, ④축법온과 지인도의 심무의心無義, ⑤우법계의 식합의識含義, ⑥우도수의 연희의緣會意, ⑦축도일의 환화의幻化義. 검전무웅(정순일 譯), 「중국불교사」, 경서원, 1996, 참조

24) 허인설, 「위진남북조시대 현학자들의 불교이해방식 특성 고찰」, 동서비교문화학회 제25호 논문, 2011 참조

25) 사구백비四句百非는 사구분별, 사구문이라하며, 변증법의 한 형식이다. 사구는 정립, 반정립, 긍정종합, 부정종합이다.(종락) 백비는 부정을 거듭하는 것으로 몇 번이고 부정을 거듭할지라도 참으로 사물의 진상을 알기 어려울 때 써서 중생들의 유무의 견해를 결립없이 알게 하는 것-김길상, 불교대사전上, 흥법원, 1998, p.1047

26) 「치문」의 「開善密庵禪師答陳知丞書」(서장)편 p.128

운문사 새벽예불

무상행

마음의 소리 사람의 소리
범종 운관 목어 앞세우고
솔바람 새벽길 따라 일룩진 세상에
잔잔한 붓질을 한다.

천상의 소리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운문사 새벽예불 올리는 사람의 소리이다.

천사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운문사에서 새벽을 여는 생명의 어머니들이다.

아름다움은 꾸미는 것이 아니라 소박하고
절제된 씨줄날줄로 삶을 노래하는 수도자의
진솔한 모습에서다.

그윽하다 은혜롭다 묵은 때 벗은 사람소리에
절주하던 심장박동이 너그러운 바람이 되고
나눔에 키 재기 하던 까치발 뒤통치를 낮추고
인연에 순응할 줄 아는 바다가 된다.

늘 깨어 있되 드러나지 않게
단순하고 간소하게 살라한다. ㉞



김미형(무상행)님은 경남 남해에서 태어나 현재 전업주부이면서 한국문인협회, 국제펜클럽, 한국가곡작사자협회에 있으며 시집 『내안에 있는 너』, 『인연이 흐르는 강』과 『마음에 평안을 주는 시』 1, 2, 3, 4, 5, 6집 가곡 『바람이 전하는 말』, 『진양호에서』, 『두물머리 연가』, 『그대 그리움』 등 그리고 제 7회 황진이 문학상 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편집자 주 이 시는 우연히 일진 주지스님 핸드폰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이처럼 좋아하시는 스님을 뵈며 운문자를 구독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에 실게 되었습니다.

산사의 음식

성돈 / 사교과

지난 한 해, 밭에서 장화 신고 호미 들고 리어카를 끌면서 대중스님들의 먹을거리를 준비하느라 바쁘게 지냈다. 올해는 수확할 먹거리로 대중스님들에게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공양상을 차려야 하는 소임을 맡게 되어 어느 때보다 사찰음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마침 재직 사찰에서 ‘전통 사찰음식 강좌’를 하기에 사찰음식이 현대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지금 우리나라는 물질이 풍요로워져서 먹는 것 또한 풍요로워졌다. 그러나 먹는 것이 풍요로워져서 먹고 배는 부르지만 마음은 배부르지 않아 만족스럽지 않다. 게다가 몸이 자주 아프고 건강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이는 물질이 풍요로운 반면 좋은 음식과 좋은 먹거리로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만족스럽고 건강하게 하는 음식이 적어진 데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점차 건강식을 찾게 되어 산사 음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1980년대부터 유럽에서는 이미 산사음식을 연구하러 와서 스님들께 산사음식을 배워 실제로 건강에 좋고,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연구를 했다. 오래전부터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건강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발표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유럽에서 산사 음식을 배우러 온 것은 온난화로 인해 지구가 점차 아열대 기후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음식의 유통과정이 냉동과 냉장을 거치게 되는 원인에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친 음식을 섭취한 인체는 냉기가 싸여 인간의 평균 체온 36.5도에서 1이 약간 모자라게 내려가 인체는 면역력이 떨어져 약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면역력 약화로 각종 바이러스와 많은 병이 생긴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냉동과 냉장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국의 산사음식에서 해결점을 찾았던 것이다.

첫 번째는 냉동·냉장을 거치지 않아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저장음식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장아찌·건조음식 등이다. 모든 음식을 조선간장과 된장으로 잘만 버무려 먹어도 인체의 오장육부를 편안하게 하고 내장에 염증이 생기지 않는다. 조선간장과

된장은 장독에서 묵히면 묵힐수록 약성이 높아져 인체를 건강하게 돕는데 위장염 예방뿐만 아니라 체내염증 예방, 병치료 효과가 있다. 또한, 조선간장은 소금의 모든 불순물이 제거된 최고 좋은 정제된 염분이 되는데 이것을 섭취하면 몸에 약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 몸의 수분은 70% 몸에서 수분 조절이 필요할 땐,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수분 섭취가 사계절 내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생수를 많이 먹지만 보리차가 약이다. 산사에서는 숯불로 보리와 옥수수를 반반 넣고 팔팔 끓여 마시는데, 이것에는 열의 기운이 들어 있어 인체의 체온과 수분조절의 균형을 돕는 역할을 한다. 본래 인체에 불(火)의 기운이 부족하면 신경질과 짜증을 내며 불만족스러움을 느껴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는다. 이럴 땐 폭 끓인 뜨거운 국도 만족감을 준다..

세 번째는 음식을 먹는데 물질적 에너지를 100% 내는 것이 아니다.

물질적 에너지는 20~30%이고 나머지 70~80%를 채워주는 것은 마음의 에너지이고 우주 에너지로 농사짓는 사람, 만드는 사람의 정성과 기운이 담겨 들어간다. 좋은 음식은 물질이 풍요로운 좋은 재료가 아니라 좋은 마음과 좋은 기운으로 만들면, 이 음식을 먹은 사람은 마음이 따뜻해지고 만족감을 느끼며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산사의 음식은 정진 수행하는 스님들에게 바로 영향을 미치므로 음식을 만드는 이의 정성과 좋은 기운은 가장 중요하다.

우리 조상이 남겨주신 전통 음식문화가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많이 사라졌다. 조상들이 가르쳐준 대로 따라만 해도 병이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단절되고 사라졌지만, 사찰에서는 고스란히 남겨져 있기에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 같다.

음식을 만드는 것은 행복하고 중요한 일이다.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밥을 먹는다. 이 밥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밥을 만드는 것이 정성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며 공양하기 전 감사와 정진을 다짐하는 계승을 되새겨 본다.

*오관계五觀偈

계공다소량피래치計功多少量彼來處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촌기덕행전결응공付己德行全缺應供 내 덕행으로 받기가 참으로 부끄럽네
 방심이과탐등위중防心離過食等爲宗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정사양약위료형고正思良藥爲療形枯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삼아
 위성도업응수차식爲成道業應受此食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



강원에서만 잘하면 되나?

원겸 / 사집과

쿵. 쿵. 쿵. 쿵...

차마 뛰지는 못하고 다리를 있는 대로 쪽쪽 뺨어 도량을 누비는 발걸음에는 여유를 찾아볼 수가 없고 그 소리에는 마음에 무게마저 실어진 듯합니다. 누가 딱히 준 것도 아닌 눈치에 혼자 온 신경을 곤두세워, 보는 사람마저 숨막히게 하는 답답한 치문반 원겸입니다.

처음 이곳 운문사에 발을 들이기 전부터 저에게 운문사라는 곳은 그리 낯설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어느 남자들의 모임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군대이야기처럼, 저희 절 스님들께서 모임을 가지는 자리에는 정말 잊을 만하면 다시금 운문사라는 강원이야기를 붓집장수가 보따리 풀듯 술술 풀어나가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한낱 이야기로만 접해본 저에게 운문사라는 곳은 소왕국이요 신세계였지요.

일머리는 잘 안 돌아가고 행동은 또 어찌나 굼뜬지... 여러모로 걸리는 게 많은 저는 기대감보단 긴장감을, 설렘보단 두려움을 안고 그렇게 운문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운문사에서의 첫 걸음을 떼어 차서로 끝에서 3번째라는 이유로 '종두막내' 소임을 살게 되었는데 소임도 소임이지만 도량 곳곳 안 뺨친 곳이 없는 면밀한 인수인계라는 문화는 안 그래도 뻔뻔 빼거덕거리는 저를 더 곤두서게 하기 충분했고 그리 호되게 야단치지 않고 정말 걱정하는 맘으로 걱정해주는 상반스님들은 저에게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경계해야 할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운문사에서의 나날이 흘러 흘러 철이 바뀌고 드디어 수개월간의 강원생활에 잠시 쉽표를 찍는 방학이 되어 노스님과 사숙님들께 돌아가 마치 콜럼비스가 신대륙을 탐험하고 온듯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첫 강원생활 경험담을 늘어놓고 뽐뿌한 스케줄의 강원엔 없는 여유도 만끽하며 방학을 지내고 있던 중 어느 날, 너무 여유를 가진 탓일까요, 사숙님께서 털썩 하시는 말씀이...

"강원에서만 잘살면 되나? 사람이 한결같아야지..."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라도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걸 알기에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내가 강원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것과 동시에 지나온 시간 동안의 제 행동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내가 강원에 온 이유는 정공부도 공부지만 마음공부 하러 온 건데… 강원과 우리 절에서 나의 행동이 여의하지 않으면 그건 강원에 온 이유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의 강원생활은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온 걸까… 곰곰이 생각해본 결과, 바로 숨막히게 돌아가는 빠박한 스케줄의 강원에서 잠시 각 사찰로 돌아갔다 오는 방향을 저 는 보상심리에 가득 차서 어떻게서든 조금이라도 더 쉬고자 하는 마음이 앞선 것이 그것인 것 같아, 그리고 그 마음이 사숙님들 눈에는 훤히 비춰진 것 같아 심히 부끄러웠습니다.

노스님께서 제가 강원에 간다고 할 때 해주신 말씀이 딱 한가지였습니다.

“원경아, 주변을 봐버릇 하지 말고 너 자신을 보며 살아라…”

막상 들을 때는 그리 크게 생각하지 못하고 받아들였었는데 사숙님의 지나가던 말 하나로 노스님의 말씀처럼 이 대중 속에서 수순하여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이 강원에서는 그리고 수행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새로이 봄이 와 곳곳에서 뜻 생명들의 기지개 소리가 들려오고 새로이 치문반스님들이 들어와 곳곳에서 인수인계소리가 들려오는 도량에 활기가 넘치는 계절, 그래서 더욱 신심 나는 계절, 첫 철이 돌아왔습니다. 사집으로서 마땅히 치문반스님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하겠기에 마땅히 더욱더 나 자신을 돌아다볼 수 있는 첫 철이 되기를 발원합니다. ॥





내가 운문사에 오기까지

도현 / 사미니과

제가 운문사에 온 지 벌써 2주가 되었습니다. 엇그제 온 것 같은데 벌써 보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어찌다가 불교를 접하고 부처님을 알게 되어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돌아켜보면, 다시 태어난 것 같은 황홀함에 과거의 저를 잊어 버리곤 합니다. 북한의 정치가 싫어서, 자유를 찾아 여러 번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만난 것이 스님이고, 그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제가 이해는 못하지만 뭔가 마음은 편해지고, 그 시간만큼은 마음 속의 고통 속에서 풀려나는 것 같아 자주 절을 찾았고, 불법도 모르면서 그냥 좋아만 하였습니다. 여기에 오기까지 너무도 많은 고통이 있었고, 아무리 잊으려고 애를 써도 잊혀지지 않는 악몽들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잡고 있어서,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데 취미를 못 붙이고 방황하였습니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까 생각하고, 영사관 앞까지 가기를 몇 번 했었지만 죽음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선뜻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스님 말씀대로 108배의 의미도 모르면서 매일 절을 하고 조금이나마 평온을 찾으며 절에 관심을 가지고 조계사를 자주 찾았습니다. 거기서 지금 저의 은사스님을 만나게 되어 그 인연으로 스님의 절에 자주 가게 되었고, 스님의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깥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이렇게 아름다운 삶도 있다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스님께 함께 살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쉽게 답을 주셔서 절에서 스님과 함께 노스님을 시봉하며 지내다가 점점 더 절이 좋아졌고 나도 스님이 되면 어떨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잊고 지금의 은사스님처럼 여법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내가 스님이 된다면 어떤 모습으로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가 누구인지 찾고 나를 위해 살 수 있을까? 등등의 생각으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3000배의 절을 하고 머리를 깎겠다고 은사스님께 저의 결심을 말씀드려 삭발하고, 부처님의 제자로서 희망과 포부를 안고 새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은사스님과 주변 어른스님들의 권유로 운문사에 오게 되었습니다. 기계처럼 착착 맞물러가는 일과 생활, 따듯하고 다정한 분위기에 상하가 구별된 질서와 규정, 그리고 엄격하면서도 감싸주는 대중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는 나를 위하고 나는 너를 위하여 각자의 수행공부를 하면서, 스님으로서 초행자의 길을 걷고 있는 저희들에게 훌륭한 스승이 되어주시고 어머니가 되어 주시는 운문사의 어른스님들과 상반스님들이 참 좋습니다. 매일매일 흘러가는 시간

이 언제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바쁘게 습의를 받고 있지만, 이 시간을 보냄으로써 제가 참수행자가 되기 위한 지름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모르는 것뿐이고 비몽사몽이지만 나름 뿌듯해집니다. 운문사에서 생활하면서 제일 좋은 것은, 일일지시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며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잘못된 행동도 감싸주며 일깨워주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상반스님들이 감동이었습니다. 운문사에 오기 전 상반스님들이 부서워서 치문반 때는 땅만 보고 다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조이며 초조해하고 안절부절못하는 저희들에게 하나하나 엄격하지만 부모의 마음으로 챙겨주시는 상반스님들이 너무 존경스럽고 좋았습니다. 이럴 때마다 은사스님께서 운문사에 보내주신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운문사를 선택한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그 누구보다 힘들게 이 길에 들어선 만큼 노력에 노력을 더하고 저의 열정을 다해 운문사 강원생활을 훌륭히 해내는 수행자가 되겠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무나 쉽게 올 수 없는 이 도량에 제가 살고 있음을 잊지 않고, 그 금지와 자부심으로 열심히 배우고 살겠습니다. 제가 강원예 방부를 들이고 며칠 안 되어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가게 되었을 때에도 어른스님들을 비롯한 입승스님과 큰부전스님과 작은부전스님, 화엄반스님들과 도반스님들의 사랑과 정성에 빨리 좋아져서 치문습의를 원만히 받고 일과 생활을 잘할 수 있음에 더없이 감사한 마음입니다. 강원생활을 잘살아 훌륭한 수행자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한번 더 생각하고 뒤돌아보면서 저를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해주시는 은사스님을 생각하며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제가 머리 깎을 때 세운 목표대로,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3만명이 넘는 북한 이탈주민들을 돕고 싶습니다.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며 힘들어하고 의지할 곳 없어 기독교나 천주교를 비롯한 종교 여기저기를 방황하며 다니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하신 법을 알게 하고 그들에게도 저의 행복을 나누며, 나이가 들어 독거노인이 된 이들을 돌봐주며 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문사의 넓은 도량에서 마음껏 배움의 꽃을 피워 완벽한 모습의 스님으로 운문사 강원을 졸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문사의 어른스님과 대중스님 모두 감사합니다. ॥



역경보살 월운 큰스님

원담 / 대교과



이번호 '끝없는 여정'의 선지식이 결정되자 '우연이 아니구나' 싶었다.

작년 능엄경을 배우면서 운허 스님께서 쓰신 주해서를 너도나도 가까이했었다. 해박한 지식과 해설을 초학자 까지도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씌여져 있었기 때문이다. 스승이신 운허 스님의 원력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역경불사(譯經佛事)에 평생을 바치신 월운 스님이 바로 주인공이다.



새벽에 출발하여 오후가 되어서야 겨우 도착한 경기도 포천의 봉선사스님께서 계신 다경실로 안내받아 향하던 중 '대웅전'이라는 한문이 아닌 '큰법당'이라고 씌여진 또렷한 한글 현판을 보았다. 사방의 주련과 편액 역시 모두 한글! 아름다운 우리말이었다. 우리들은 마치 누가 시킨 듯 동시에 큰소리로 소리 내어 읽으면서 새삼 아름다운 우리말의 감동에 빠져들었다.

운허 스님과 월운 스님의 불교 대중화 의지와 절절함과 하나가 된 느낌으로 한참을 우두커니 서서 쳐다보았다.

스님께서 계신 '다경실茶經室'은 다로경권茶爐經卷에서 유래했으며 차를 마시며 경을 읽는다는 뜻으로 그 이름만으로도 대강백의 처소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스승이신 운허 스님의 진영을 한켠에 단정하게 모셔 두었고 가지런히 한쪽 벽을 가득 채운 번역본 외에는 검박하기 그지없는 스님의 살림살이를 엿볼 수 있었다.

손수 맞아주시는 여든여섯의 노장은 겸손하고 유머 넘치시며 솔직담백하셔서 마치 천진불과도 같았다.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다 했던가? 서리가 내린 스님의 흰 눈썹 아래 눈빛이 그 빛을 잃어가는 쓸쓸함을 엿본 우리들은 어느 때와 같은 질문과 답변의 형식은 노장께 오히려 누가 될까 하는 생각으로 그저 말씀의 흐름에 편안히 맡겼다.

옛 일을 회고하시면서 스님과 하나가 된 경전의 말씀과 명구를 가끔씩 인용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지만, 오랜 시간 듣고 말씀하시는 일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 안타까운 심정으로 마무리하였다. 그래서 오늘의 스님 말씀과 함께 행적을 소개하겠다.

조계종의 3대 사업인 포교, 도제 양성, 역경 중 하나로 추진하기로 결정된 후 1964년 3월 1일 초대 동국역경원장으로 운허 스님이 취임되신 후 평생 역경에 매진하셨으며, 월운 스님이 스승의 원력을 이어받아 1993년에 동국대 역경원장으로 취임되신 후 2001년 총 318권으로 마침내 한글대장경이 완역됐다.

한글대장경 완역은 불교계를 비롯하여 국가적인 사업으로 세월이 흐른 후 지금보다 훌륭한 평가를 기대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다. 그리고 한글대장경 개역사업, 전산화 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한 아쉬움을 스님께서 밝히신 바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해인사 팔만대장경은 한문으로 새겨져 있다. 한문 대장경을 한국어로 번역한 한글대장경을 완성하는 것이 원력이신 운허 스님과 월운 스님의 피땀 어린 세월과 노력을 모른 채 살아온 사실이 새삼 죄송스러웠다.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먼저 경전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경전을 한글화하는 것이 바





로 불자들의 신행을 바로 하기 위한 일이라고 평소 말씀하셨다.

한글세대에 맞춤경전을 만들기 위해서 한문을 잘 아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당부하시면서 한문을 버리려면 한문을 잘 알아야 한다는 역설을 말씀하셨다.

스님께서 봉선사에서 농업학림을 통해서 손수 후학을 지도하고 정성을 쏟으시는 것도 아마 이 이유 때문이라 생각한다.

경전의 구절 하나하나가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깊게 믿으시기에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 삶과 연결

하기 위해 외롭고 힘겨운 평생의 나날을 한결같이 노력하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말뿐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하나 된 그 신심의 자리가 그림고 그림다.

스님 방에는 운허 스님께서 쓰신 “시비해리는 非海裏 횡신입橫身入 표호휘중豹虎巢中 자재행自在行”이 걸려 있었다.

궁금해서 돌아와서 찾아보았다.

‘시비의 바다에 몸을 던지고 들어가서 표범과 호랑이가 득실거리는 가운데서 걸림 없이 행동하라’는 뜻이었다. 시비에 휩싸여도 당당하게 매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용맹심을 강조하는 스승의 격려와 정책이 한꺼번에 담긴 말씀이다.

우리는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이 된다. 오로지 한 가지에 집중하기에도 벅찬 승의 살림살이가 아닌가?

나와 남에게 이익되는 일에 원력을 세워 평생을 일심으로 바위처럼 움직임 없이 노력하신 스님의 한 말씀이라도 더 새기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지만 이마저도 못 뵈었으면 기약이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감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스님의 건강과 오래 우리 곁에 머물러 주실 것을 발원했다.

화엄경 현수품에서 “어둠 속에 보물이 있다 해도 등불이 없으면 알아볼 수 없다.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지혜로워도 알아볼 수 없다”는 비유가 있다.

스님께서는 경에 담긴 부처님 말씀을 현대의 많은 대중에게 전달하여 불법의 바다에서 보물을 찾을 수 있도록 환히 등불을 비추는 보살이 아닐까?

부처님을 닮고 싶고 궁금한 사람들에게 등불을 환히 밝혀주는 보살의 자비와 원력에 새롭게 발심하여 더욱 열심히 정진할 것을 다짐해 본다. ☸

감로수甘露水

진용 / 사교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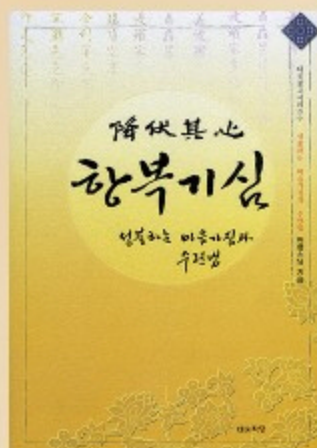
隨伏其心 항복기심

성불하는 마음가짐과
수련법

길을 가게 만드는 책

『항복기심』 - 성불하는 마음가짐과 수련법

법안 / 한문불전대학원



워낙 많은 인쇄물과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요즘 ‘또 누군가 책을 내서 박스데기로 돌리는구나’ 하고 대중공양을 받고도 한쪽으로 미뤄있던 책이었다. ‘항복기심 - 성불하는 마음가짐과 수련법’이라는 책 제목도 그렇고 또 저자가 현 시대 중국스님이라는 것도 크게 마음을 내지 않는 한, 손이 가지 않는 그런 책이었다. 그러나 우연치 않게 설정 스님의 추천사를 읽게 되었다. 또 저자의 후기를 읽으면서 나랑 비슷한 연배의 스님이 10년 전에 이 법문을 하셨음에도 온전한 체험에서 우리나라 당신의 말들이 스편지가 물을 흡수하듯, 나의 가슴에 새겨졌다. 특히 ‘우리가 십년을 넘게 이 공부를 지어오면서, 부처님 공부를 그렇게 오래 하였는데도 왜 아무런 감응도, 진보도 없느냐?’ 고 물으시는 부분에서는 내 마음과 딱 결합되었다.

그러게 말이다.

누가 나더러 출가하라고 떠밀었던가?

내가 선택한 출발점에서 나 또한 자신을 책임지기 위해 십년 넘게 애는 쓰고 있다. 그렇지만 거친 마음을 쉬지 못할 때도 많고, 그래서 온 마음일 수 없었던 나에게 이 책은 심리적인 힘, 생리적인 힘까지 균형있게 다스려 쓸 수 있도록 수련법을 자상하게 일러주고 있다.

만행 스님은 말씀하신다.

“부처님 공부를 해야만 부처가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처를 믿는 것에 머물러 있다. 그러곤 ‘무엇이 부처를 믿는 것’이고 ‘무엇이 부처님 공부를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부처를 믿는 것’이 ‘부처님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부처를 그저 믿기’만 해서는 부처가 될 수 없다. ‘부처님 공부’는 부처를 믿는 단계에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것으로 믿음의 단계를 초월한다.

부처님 공부에는 ‘일정한 방법’이 필요하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당초에 수행을 시작하실 때 여러 스승들을 참배했고 그들에게 ‘방법’을 배웠다. 수행은 경건한 신앙만으론 부족하고 ‘일정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부처님 공부는 무엇이기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진다.

그리고 나는 부처를 믿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진짜 부처님 공부를 하고 있는지 점검에 들어가는 말이었다.

만행 스님은 또 말씀하신다.

“부처님 공부는 무엇인가? 바로 부처님을 따라 배운다는 것을 말한다. 싯다르타와 부처, 보살 및 고대 조사님들의 모든 사상, 행위 및 우리에게 남겨 놓은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 등을 모두 따라 배워야 한다. 하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부처님 공부를 한다면 소용이 없다.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다고 결심했다면 ‘부처님의 시각’에서 부처님 공부를 하여야만 성불할 수 있다. ‘일반인의 마음’으로 부처를 믿을 수는 있지만, ‘일반인의 마음’으로 부처님 공부를 하면 되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부처님 공부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가? 10여 년을 수련했는데도 나아지지 않았다면, 이것은 ‘일반인의 마음’으로 부처님 공부를 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부처님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으며 ‘부처를 믿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부처님 공부’는 일종의 봉사이며, 희생적 지출이기 때문에 무엇을 얻어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바지 하는 데 있다. ‘부처님 공부’는 아주 어려운 일이며, 인류의 본보기를 보이는 일이다. 자기의 마음을 혁신하고 부처님의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진도가 빠름을 느낄 수 있다. 공부에 진전이 없다는 것은 보통 사람의 마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위 ‘초월한다’, ‘해탈한다’는 것은 사상적인 측면부터 자기를 혁신시켜야 한다. 인류의 본보기라 하면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이겨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사람이 아닌 부처가 되고 싶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에서도 더욱 모범이 되고 이겨내야 한다. 아니면 부처님 공부를 하지 말아야 한다.”

서장을 배울 때 강사스님께서 늘 강조하시던 말씀이 생각난다.

“자네들은 진정으로 성불을 원하는가?”

마음은 여전히 ‘나라는 놈, 게으른 놈, 인정받고 싶은 놈, 맛있는 거 먹고 싶은 놈’이 있으면서 말로만 ‘성불’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었는지… 그랬기 때문에 아직도 제 자리 걸음일 것이다.

지금 이 책을 소개하는 것이, 책을 읽으며 받은 감동에 비하면 아주 조그마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산을 오르다 조금 쉬어 가고 싶다가, 갈증과 재충전의 에너지가 필요할 때, 목적지가 희미해졌다면 이 책을 한 줄 한 줄 챙겨가며 꼭 읽어보길 바란다. 우리와 같은 시대에, 같은 공기를 호흡하는 우리 또래의 이 젊은 스님은 벌써 저만큼 먼저 가서 우리에게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하고 계시나….

분명 절투도 나고 분발심도 일으킬 것이며, 큰 힘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이다.

길을 가게 만드는 소중한 책이 되리라 확신한다.

길을 가야만,

‘자기체득’과 ‘소감’이 있어야 만,

또 길을 갈 수 있기에…

우리는 흔들리며 피는 꽃들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흔들리고, 내가 가졌던 습관들에 흔들리고, 다시금 발견되는 나에게 흔들린다. 그렇기에 온통 흔들리는 것 뿐으로 보이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나은 이들에게는 눈에도 걸리고 마음에도 걸린다. 하지만 흔들리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온통 나를 흔드는 것들이 더 많은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각자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나름껏 견디고 애쓰고 있다. 내 뿌리가 단단해지고 내 줄기가 곧게 설 수 있도록 지금 여기서 노력하고 또 노력한다. 그리고 서로가 노력한다면 이 봄은 언젠가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날을 위하여 부처님이 주신 선물이 될 것이다.

운문사에도 봄이 찾아왔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듯 도량 곳곳 이름표를 가슴에 단 치문반들이 분주히 움직인다.

으레 그렇듯 치문이란 그룹에 속하게 되면 나이를 불문하고 실수투성이에 온통 모르는 것뿐이다. 사회에서 무엇을 했던, 무엇을 공부했던, 역할이 무엇이었던, 그런 것들은 이곳에서 통하지 않는다. 단지 새로운 것들을 익히며 승승장구로서 다시 태어나는 일뿐이다.

마찬가지로 새내기 치문을 한집 식구로 맞은 사집반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대중의 음식을 책임져야 하는 사교반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화엄반도 또한 처음이다.

그러면 우리들은 모두가 처음투성이인 도량에 어느 정도 너그러울까?

사람의 인생을 계절로 볼 때 우리는 태어남을 봄에 비유한다. 역시 출가해서 정식 승려가 되지 않은 사미니들에게도 출가 나이는 봄일 것이다.

그런데 봄을 살펴보면 마냥 설레고 활기찬 것은 아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날씨 뒤에는 어김없이 꽃샘추위가 찾아오고 어린 잎들을 간절이는 봄비와는 반대로 역수같은 비와 강한 바람이 찾아와 자라나는 새싹들을 괴롭히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모진 것들을 견뎌내고 꽃을 피우려 애쓰는 새싹들을 볼 때면 왠지 우리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얼마 전 차례법문에 인용된 시의 구절처럼 우리도 역시 흔들리며 피는 꽃들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환경에 흔들리고, 내가 가졌던 습관들에 흔들리고, 다시금 발견되는 나에게 흔들린다. 그

렁기에 온통 흔들리는 것뿐으로 보이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나은 이들에게는 눈에도 걸리고 마음에도 걸린다. 하지만 흔들리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온통 나를 흔드는 것들이 더 많은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각자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나뭇잎 견디고 애쓰고 있다.

문제는 견딤과 애쓰미가 흔들림보다 미약하여 서로에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행동들을 찾으며 나와는 다른 것들에 집중하고 그들을 고치려 한다.

회광반조廻光返照의 가르침을 새기려는 우리가 남을 나에게 맞춘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이 또 있을까?

이런 꽃들을 볼 때 우리에게는 기다림이라는 배려와 너그러움이 필요하다.

나에게 맞추려고만 하기 전에 이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익숙해지고 다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이해이다.

다른 점들을 찾아내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꽃을 피우게 될 꽃들을 포용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굳이 나에게 맞추지 않아도 우리는 편안하게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단지 바라볼 수 있는 너그러움이다.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잘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언젠가는 할 수 있다고,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어주는 것이다.

이 믿음은 자라는 꽃들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다.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는 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것은 세상에 없기에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할 수 있는 용기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도 흔들린다. 그러나 이 흔들림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과정임을 알기에 내 뿌리가 단단해지고 내 줄기가 곧게 설 수 있도록 지금 여기서 노력하고 또 노력한다.

그리고 서로가 노력한다면 이 봄은 언젠가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날을 위하여 부처님이 주신 선물이 될 것이다. ㉞



▲ 신중기도



▲ 미국 조지아주대학교 템플스테이



▲ 치문반스님 사리암참배



▲ 화엄반스님 자비탁발



▲ 처진소나무 막걸리 주기

운문 소식

- 3월 7일 봄철개학공사 및 신입생 방부(대학원생스님 7명, 사미니과 33명)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3월 7일~9일 대중스님들의 무장부애를 발원하는 신중기도가 3일간 대웅보전에서 있었습니다.
- 3월 9일 신중기도 회향 후 산불예방 소금문기를 하였습니다.
- 3월 11일 미국 조지아주립대학(지도교수1명, 학생16명)에서 사찰체협으로 2박3일간 운문사를 다녀갔습니다. 석광 강사스님과 화엄반스님, 사교반스님, 사집반스님이 지도에 힘써 주셨습니다.
- 3월 12일 염불수업을 시작으로 요가 및 서예 외전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 3월 14일 치문반스님들이 사리암 참배를 다녀왔습니다.
- 3월 15일 봄철 신입생스님을 위한 생활 안내와 첫 자초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3월 18일 연례행사인 대교반스님들의 탁발이 동곡, 대천, 언양, 부산 등지에서 있었습니다. 총 탁발금액은 8,630,000원으로 인근 지역 노인복지관 군부대 태국 마하파사파티 불교대학교 등의 지원금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3월 20~28일 중사 홍윤 학장스님, 중사 교수사 갈마사로 일진 주지스님께서 참여하시고, 운문사 50회 졸업생이 귀족계를 수계하였습니다.
- 3월 29일 범어사 수불 주지스님과 신도 800명이 운문사를 방문, 일진 주지스님께서 신도님들께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 4월 2일 천연기념물 제180호 처진소나무 막걸리 주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 4월 4일 학인스님들의 차례법문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4월 5일 느리게 읽기 모임(사진작가, 시인, 아나운서, 배우)에서 운문사를 방문하여 대중스님들에게 재미있고 따뜻한 강의를 해주었습니다.
- 4월 8일~11일 봉녕사에서 열린 제 22회 식차마나니 수계산림에 갈마 위원으로 일진 주지스님께서 참석하시고, 사교반스님 32명이 식차마나니계를 수계하셨습니다.
- 4월 11일 제8회 청도유동제에 어른스님들과 대교반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 4월 19일 논산 호국연무사 젊은 혼련병 4,000명이 수계를 받았으며, 어른스님 대학원생스님 사교반스님이 참석하여 연비를 해주었고 수계법사로는 일진 주지스님께서 애써주셨습니다.
- 4월 25일 불기 255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위한 26일간의 봄방학이 시작됩니다.

도와주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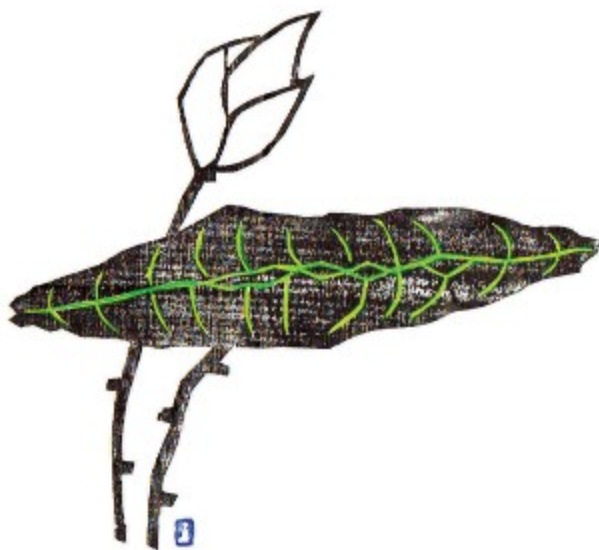
- 청계사 주지스님 • 원창사 • 송창일 • 김순애
- 서경재(요코야마 게이코) 교수님 • 이기태 • 정수신화 • 신현섭
- 삼신사 • 광주 정안사 • 이명규 • 박형수 • 이정숙 • 정해옥 • 권혁창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370-7139

* 2002년에 『雲門』誌를 신청해 주신 분들은 10년이 지난 관계로 주소가 삭제되었으니 신청을 원하시는 재가신도분들은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할 때 그 마음으로

동식 스님

통권 128호, 봄호, “푸른 달”

우리는 항상 죽음을 준비하듯이 멋있게 이별을 준비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나를 항상 바로 보고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머리카락이, 눈동자가, 피부가 성장하듯이 나의 영혼까지 스스로 자라지는 않는다. 우리는 정말로 튼튼하고 잘 자라야 하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이별을 하게 될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인연의 소중함과 간절한 마음이 있듯이 멋있고 아름다운 이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수행자가 되고 싶다. - 桴愷

* 「자유기고」에서는 전국학인스님들의 기고 글을 받습니다.

* 「호거산 운문사」에서는 운문지 독자 후기, 운문지에 관한 에피소드 등등 독자의 소리를 담습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믿음은 생사의 강을 건네주고
 마음 단속은 뱃사공이다.
 부지런한 노력은 괴로움을 없애주고
 지혜는 피안에 이르게 한다.

- 법구경 -

雲門僧伽大學

714-881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번지 雲門寺 / 편집부 (054) 370-7139 / 종무소 (054) 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불호·통권 제128호·2014년 4월 22일 발행·등록 1995년 3월 29일·등록번호 경북 바-01008 / 발행처·운문승가대학 / 발행인·명성(전임호)
 고문·진광 / 편집·운문승가대학 편집부 / 편집장·나경 / 편집위원·나경 / 사진·편집부 / 표지사진·나경(불의 길목) / 삽화·해운 / 편집디자인·Design
 MARU(디자인 마루) (053) 426-3395